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워더링 하이츠』에 나타난 유령성과 개인화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조 유 빈

『워더링 하이츠』에 나타난 유령성과 개인화

지도교수 조 선 정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조 유 빈

조유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김 혜 주 (인)

부위원장 이 미 정 (인)

위 원 조 선 정 (인)

국문초록

에밀리 브론테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삼 세대의 뒤엉킨 관계와 넬리가 서술하는 가족사 사이의 부조화를 그린다. 넬리는 엄마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유령들로부터 3세대를 분리하여 딸 캐서린과 헤어턴의 결합으로 수렴하는 가족사를 쓴다. 그러나 유령성은 3세대의 삶으로 이어지며 3세대의 개인화는 2세대의 욕망과 결부된다. 유령성과 개인화는 가족의 역사를 이루는 두 세대를 분절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에밀리 브론테의 시각을 반영하며 젠더화된 개인들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화하는 넬리식 가족사 쓰기의 실패를 시사한다.

1장은 유령성의 실마리를 엄마 캐서린의 소녀 유령에게서 찾는다. 캐서린은 집이 없고 형체가 모호하게 묘사되며 자신의 고통을 묵인하고 유령으로 명명된다. 이 특징들은 2세대의 삶이 공개되기에 앞서 2세대의 삶을 요약한다. 학대받는 2세대의 삶 이야기가 소녀 유령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사이 워더링 하이츠는 유령을 낳는 유령의 집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고 관광객-서술자 록우드의 유사 유령 체험이 그 위력을 입증한다.

2장은 히스클리프가 기획한 복수가 3세대를 구속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1장에서 밝힌 네 번의 변주를 통해 구축되는 유령성은 워더링 하이츠를 중심에 둔 유령적 삶의 패턴을 형성한다. 3세대가 이 패턴을 뒤따라 밟으면서 유령성은 회귀와 결박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얻는다. 유령성으로부터 3세대가 탈피하는 과정에서 성애에 기반을 둔 로맨스와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3장은 서술자 넬리에게 주목한다. 유령성과 개인화가 구현되는 방식은 2세대와 3세대가 서로 침투하는 관계에 있음을 명시한다. 하지만

넬리는 2세대를 유령으로 3세대를 개인으로 구별하고 좁은 의미의 가족 형성을 지지하고 축하한다. 넬리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워더링 하이츠』에 잔존하는 유령성과 끝까지 가족에 편입되지 않는 히스클리프의 존재는 넬리의 권위를 흔든다.

주요어 : 에밀리 브론테, 『워더링 하이츠』, 유령성, 개인화, 가족사, 세대 간 관계

학 번 : 2018-27131

목 차

국문초록 ····· i

서론 ····· 1

1.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 ····· 14

2. 3세대의 개인화 ····· 35

3. 넬리의 가족사 쓰기와 떠나지 않는 유령 ····· 58

결론 ····· 80

인용문헌 ····· 83

Abstract ····· 87

서론

『워더링 하이츠』(*Wuthering Heights*, 1847)에서 반복되는 이름들 틈을 비집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아가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워더링 하이츠』는 각각의 이름을 지닌 인물들이 서로 연결되는 동시에 개별화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C. P. 생어(Sanger)와 데이비드 세실 경(Lord David Cecil)은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ë)가 『워더링 하이츠』를 정확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주도면밀하게 쓴 정합적이고 대칭적인 구조를 지닌 작품이라고 분석한다. 이들의 평가를 떠올릴 때, 에밀리 브론테의 작명 방식은 더더욱 우연의 산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고도의 장치로서 소설 읽기의 한 가지 이정표가 된다. 즉 비슷비슷한 이름을 지닌 인물들을 알아가는 일은 『워더링 하이츠』를 읽는 주된 경험이다.

록우드(Lockwood)가 인물들 각각이 '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면, 자신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넬리(Nelly)가 반대편에서 중심을 잡는다. 두 서술자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는 언쇼(Earnshaw) 가문의 3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이며, 록우드가 넬리의 도움으로 이름의 주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은 곧 그가 지나온 과거를 속속들이 전해 듣는다는 뜻이다. 이 논문은 2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되는 유령성과 그로부터 멀어져 개인화되는 3세대의 이야기를 넬리의 가족사 쓰기라는 틀에서 분석하고, 『워더링 하이츠』가 가족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계승하면서도 길항하는 유령과 개인을 그린다고 주장한다.

먼저, 개별 인물 중심에서 세대 중심으로 그리고 세대 간 관계로 초점을 옮겨온 『워더링 하이츠』의 비평사를 중심으로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워더링 하이츠』를 여는 록우드는 19세기 영국소설사에서 상황을

오독하기로 유명한 우스꽝스러운 서술자이다. 록우드가 저지르는 실수와 오해는 전적으로 그 자신의 탓은 아니다. 에밀리 브론테가 의도적으로 오독을 유발하는 글쓰기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등장인물들에 붙여진 이름은 각각을 곧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하며 끝까지 독자의 혼선을 빚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워더링 하이츠 집 주인인 언쇼 씨(Mr. Earnshaw)가 오래 전 잃어버린 아이의 이름과 어느 날 문득 한 식구가 되어 집안으로 들어오는 히스클리프(Heathcliff)의 이름이 같고, 정작 서로를 기억할 수 없는 어머니와 딸에게 캐서린(Catherine)이라는 동일한 이름이 붙여지며, 워더링 하이츠의 현관에 새겨진 헤어턴 언쇼(Hareton Earnshaw)라는 이름은 누구인지 모를 이의 옛 존재를 현재의 헤어턴 언쇼에게 겹쳐 상상하게끔 한다. 또 이름이나 성씨가 일치하는 정확한 동명이인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히스클리프의 아들인 린턴 히스클리프(Linton Heathcliff)는 그의 외삼촌인 에드거 린턴(Edgar Linton)과 성씨가 없는 아버지인 히스클리프 양자 모두의 이름에 걸친 이름을 지닌다. 이처럼 에밀리 브론테가 엇비슷하게 이름 붙인 인물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모든 인물이 다른 모든 인물과 연계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각각이 모두에게서 반복되는”(everyone is finally related to everyone else, and in a sense, repeated in everyone else; Bersani 202) 상황을 낳는다.

록우드가 이름만 듣고서 히스클리프의 사별한 며느리 처지이던 캐서린 히스클리프 혹은 히스클리프 부인(Mrs. Heathcliff)을 히스클리프의 실제 아내로 오인하는 모습은 사뭇 자연스럽다. 록우드의 반응은 명백한 오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당 상황에서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의 실제 아내이자 당시 기준에서는 고인이 된 이자벨라(Isabella)의 생전 워더링 하이츠 체류 경험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록우드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의 언행이 자아내는 아이러니는 록우드를 경솔한 관광객으로만 볼 수 없게 한다. 워더링 하이츠의 세계에 막 발을 들인 독자라면 누구라도 저지를 법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록우드는 한참 동안 조롱당하고 신체적 타격을 입기까지 한다. 일련의 진입 장벽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록우드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Thrushcross Grange)로 돌아가서 넬리를 붙잡고 워더링 하이츠에 사는 인물들의 내력을 캐물을 때 그의 궁금증은 '누가 누구인지' 속 시원하게 알고 싶다는 심경으로 집약된다. 에밀리 브론테는 두 집안으로 이루어진 단출한 세계에서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는 뒤엉킨 상황을 만든 다음 각 사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서술자를 등장시키고, 동일한 구성원을 각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히스클리프와 넬리를 배치한다.

히스클리프는 록우드처럼 누가 누구인지 혼동하지도, 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넬리가 3세대를 차별하고 편애한다면 히스클리프는 헤어턴, 3세대 캐서린, 린턴 히스클리프를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하게, 개별화된 존재이기보다 2세대의 대리인으로 본다. 그에게 3세대는 한동안 복수의 표적이나 수단으로 취급해 마땅한 존재들일 뿐이다. 『워더링 하이츠』를 쓴 에밀리 브론테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 독자들의 공격은 주로 3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히스클리프의 잔인함에 대한 놀라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수의 초기 평자들이 『워더링 하이츠』에서 도덕, 호감을 자아내는 인물, 잘 다듬어진 언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는데, 특히 히스클리프에 대한 반감이 강력하다. 일례로 『아틀라스』(*Atlas*) 지에 글을 쓴 익명의 논객은 히스클리프가 소설 속 여타 남성들의 부정적 면모를 압도하는 "대마왕"(the presiding evil genius; Brontë 274에서 재인용)이라고 평한다.[1] 1848년에 출간된

1) 샬럿 브론테의 비평을 포함한 『워더링 하이츠』의 초기 비평은 노튼(Norton) 판본 『워더링 하이츠』에서 인용한다.

미국 판본 『워더링 하이츠』에 대한 리뷰를 쓴 E. P. 위플(Whipple)도 『북미 리뷰』(*North American Review*)에서 히스클리프가 "[작가의] 소설 주인공 노릇을 하는 짐승 같은 악마"(brute-demon to serve as the hero of his novel; Brontë 291에서 재인용)와 다름없다고 지적한다.[2)]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인 샬럿 브론테는 히스클리프의 잔인한 면모에 경악을 금치 못한 초기 평단의 반응을 진정시키고자 작가의 전기적 배경을 공개하고 이를 작품과 연결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샬럿 브론테는 1850년에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을 다시 출간하는 과정에서 작가 전기("Biographical Notice of Ellis and Acton Bell, by Currer Bell")와 작품 서문("Editor's Preface to the New Edition of *Wuthering Heights*)을 첨부한다.[3)] 샬럿 브론테는 히스클리프처럼 "정처 없고 타락한"(so lost and fallen) 존재를 만들어낸 에밀리 브론테 "자신도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다"(she did not know what she had done; Brontë 308에서 재인용)고 해명한다. 도시로부터 동떨어진 황야 지대 출신인 에밀리 브론테가 사회적 관계 폭이 넓지 않은 가정적 여성이며 『워더링 하이츠』는 "거친 작업장에서 투박한 도구들을 써서 수수한 재료들을 베어 만든"(hewn in a wild workshop, with simple tools, out of homely materials; Brontë 309에서 재인용) 거인의 조각상이라는 샬럿 브론테의 해설은 에밀리 브론테에게 번잡한 도시가 아닌 시골의 천재 여성작가 상을 부여한다. 덕분에 히스클리프는 한층 더 불가사의한 존재로 거듭난다.

샬럿 브론테의 친구인 엘리자베스 개스켈(Elizabeth Gaskell)은 『샬럿 브론테 전기』(*Life of Charlotte Brontë*)에서 브론테 자매들이 살던

---

2) 위플은 시드니 도벨(Sydney Dobell)과 함께 초기 평자 중 비교적 작품의 진가를 높이 사주었다는 이유로 샬럿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이목을 끌었다. 논평을 쓸 당시 에밀리 브론테를 남성작가로 착각한 듯하다.

3) 엘리스, 커서, 액튼은 각각 에밀리, 샬럿, 앤 브론테가 쓴 필명이다.

하워스의 고립성을 과장하고 그곳에서의 삶의 거친 면모를 부각하여 "브론테 자매들의 삶이 마치 그들이 쓴 소설처럼 극적이고, 짜릿하며, 거칠고, 하워스 근처의 풍경이나 『워더링 하이츠』의 분위기처럼 슬프다는 믿음"(the belief that the lives of the Brontës were, like their novels, dramatic, exciting, wild and sad like the landscape near Haworth and the atmosphere of *Wuthering Heights*; Winnifrith 169)을 형성하고 샬럿 브론테로부터 시작된 바 있는 『워더링 하이츠』-히스클리프-에밀리 브론테를 동일선상에 두는 자서전적 독법의 유행에 불을 지핀다. 샬럿 브론테와 엘리자베스 개스켈의 비평적 개입은 다른 누구보다도 에밀리 브론테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들은 작중 인물들을 둘러싼 '누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워더링 하이츠』의 주제로부터 작가에게로 독자들의 관심을 분산시킨다. 샬럿 브론테와 개스켈이 전기적 해석을 총동원하여 해설할 정도로 히스클리프의 잔인함은 당대 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도로 잔인한 히스클리프는 "외로움과 거절"(loneliness and rejection)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예로, 인간에게 하대와 학대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Paris 116). 히스클리프가 힌들리(Hindley)의 심한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존재에서 3세대를 "생체해부"(vivisection; 2.13.233)하고 싶다는 과시적인 선언을 할 만큼 잔인해진 배경에는 캐서린에 대한 그의 좌절된 사랑이 자리한다.[4] 윌리엄즈(Anne Williams)가 말하듯 히스클리프의 비인간성은 역설적으로 "인간적 사랑"(human love; 108)과 연결되며, 멘델슨(Edward Mendelson)과 콜드웰(Janis McLarren Caldwell)이

4) 『워더링 하이츠』 원문 인용은 옥스퍼드(Oxford UP) 2020년 판본을 따르고 '(권, 장, 면수)'로 표기한다.

지적하는 것처럼 2세대의 사랑은 낭만주의적 전통의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초월적 성질을 띨 만큼 순전한 면이 있다. 다시 말해 히스클리프가 보여주는 잔혹함 또는 복수심의 기저에는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언제나 캐서린을 잊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있다. 히스클리프가 부도덕한 언행으로 일관함에도 불하고 그를 비열하다고만 할 수 없다는 점은 『워더링 하이츠』에서 가시지 않는 불편함의 요체이다(Rylance 166-67).

히스클리프는 캐서린과 각별한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를 금지당한 이후 공격의 화살을 2세대 인물들뿐만 아니라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 언쇼 그리고 린턴 히스클리프에게 겨눈다. 상속제도와 결혼제도를 이용하여 다음 세대를 학대하는 히스클리프의 잔혹함의 기저에는 자신이 속해 있던 세대에서 좌절된 사랑에 대한 울분과 적개심이 있다. 이에 압도당한 그는 3세대를 그들 자체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변화하는 히스클리프와 3세대의 관계는 『워더링 하이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2세대의 로맨스와 3세대의 로맨스를 그 둘이 병렬적으로 묘사되는 듯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예컨대 모저(Thomas Moser)는 "성적 에너지의 체현"(the embodiment of sexual energy; 4)이라고 명명한 히스클리프의 남성성을 예찬하면서 3세대의 서사가 2세대의 불꽃같은 로맨스에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세대의 서사와 나란히 놓고 볼 때 상대적 파급력이 덜하다는 이유로 소설 전체에는 불필요한 부록 정도로 3세대의 서사를 축소하는 읽기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누가 누구인지' 혹은 한 인물이 어떻게 그 인물이 되는지 보여주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3세대의 서사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히스클리프 집안 사람들에 대한 록우드의 궁금증과 거기서

이어지는 워더링 하이츠 체류 경험은 애초부터 세대를 가로지른다는 특징을 띤다. 록우드는 '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복수 플롯을 가동하는 히스클리프의 삶에 불쑥 찾아 들어가 대관절 '누가 누구인지' 묻는다. 워더링 하이츠에 살고 있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록우드는 3세대 캐서린에게 접근하다가 실패하고 연이어 2세대 캐서린 소녀 유령을 만나는 꿈을 꾸면서 본격적으로 언쇼 가문의 가족사를 탐문하기 시작한다. 낸시 암스트롱(Nancy Armstrong)의 연구는 2세대 캐서린과 3세대 캐서린을 단순 비교하지 않고도 각각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과 남성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다. 암스트롱은 중간계급(middle class)의 대두와 근대 개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 형성에 기반을 둔 사회체제의 편성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가정여성(domestic women)의 활약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논증하면서, 근대적 주체인 여성에게 주어진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가정성(domesticity)을 이론화한다.

그보다 앞서 등장한 70년대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가들은 히스클리프의 독보적 면모에 다소 가려졌던 2세대 캐서린과 3세대 캐서린을 재발굴하면서 여성 인물의 정치성을 강조하는데, 암스트롱은 이렇게 밝혀진 두 캐서린의 정치적 저력의 성격을 재해석한다. 제인 오스틴(Jane Austen)에서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시기적으로 다른 삶을 산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 "주제와 이미지의 일관성"(the coherence of theme and imagery; xi)을 발견한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구버(Susan Gubar)는 여성작가의 전통에서 『워더링 하이츠』를 해석한다. 길버트와 구버의 분석에 따르면 히스클리프는 일찍이 2세대 캐서린이 아버지에게 리버풀(Liverpool) 여행 선물로 청하여 받은 "채찍"(whip; 265)으로, 그의 등장 이후 2세대 캐서린은 가부장적 질서가 지배하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강화된 입지를

차지하며 양성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5)]

그런가 하면 캐롤 오만(Carol Ohmann)은 3세대 캐서린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3세대] 캐서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헤어턴을 극화한 것이기보다 둘 모두의 해방을 그리면서”(far from dramatizing Hareton's oppression by the younger Catherine, renders the liberation of both of them; 913)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자유를 되찾고 앞선 세대의 비극과는 다른 행복한 결말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다. 길버트와 구버가 19세기 여성작가의 계보에서 “자주 낮게 평가된"(this often under-appreciated; xii) 샬럿 브론테를 중심축으로 에밀리 브론테 또한 회복하고『워더링 하이츠』의 생명력의 원천을 2세대 캐서린에게서 찾는다면 오만은 곤달(Gondal)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에밀리 브론테 작품 세계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쟁취하는 여성 인물들의 계보를 구축한다. 오만이나 길버트와 구버는 모두 2세대 캐서린과 3세대 캐서린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 질서에 저항한다고 분석한다.

암스트롱은 길버트와 구버 그리고 오만이 전제하는 ‘여성에게 억압적인 현실과 여성 권력의 부재’를 재검토한다. 암스트롱의 분석에 따르면 가정여성은 권력이 없이 체제에 저항하는 약자이기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편성되던 질서의 핵심에 위치한다. 예컨대 3세대 캐서린은 소설 말미에서 헤어턴을 가르치고 결혼하면서 가정성을 구현한다. 또 소설 전체를 종합하여 볼 때 3세대 캐서린과 2세대 캐서린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듯하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따져보면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게 19세기가 지나면서 가정여성은 더 이상 정치적 저항의 형식을

---

5) 히스클리프를 에밀리 브론테의 “채찍”으로 해석하고 『워더링 하이츠』에 드러나는 백인 여성주의 정치의 “전유”(appropriate; 282) 논리를 히스클리프에게 집중된 혐오 감정과 연결하는 논의로 Koegler(2021) 참조.

띠지 않았다. 귀족여성이 아니라 가정여성이 지배적인 관점을 대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천사 같은 여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전형에 잘 맞지 않는 여성들—빅토리아 시대 소설에 등장하는 미친 여자들과 매춘부들—은 저항의 형식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 . . . . 빅토리아 시대 소설에 등장하는 괴물여성은 가정여성과 가정여성의 존재가 지키는 젠더 분리 원칙을 반대하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행동과 동기가 어떻게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지 망각하도록 가르친 개인화 과정의 행위주체이자 산물이었다.

And so, as the nineteenth century got underway, the domestic woman no longer constituted a form of political resistance. She, rather than the aristocratic woman, represented the dominant view. But while there can be little debate in this regard about the angelic woman, is it possible to say, on the other hand, that women who did not fill the cultural mold—the madwoman and prostitutes of Victorian fiction—constituted a form of resistance? . . . . Rather than oppose the domestic woman and the principle of gender differentiation that her very presence upheld, the monstrous woman of Victorian fiction was an agent in and product of an individuating process that taught people to forget how the motives and behavior of others expressed a political identity. (Armstrong 252-53)

암스트롱이 밝힌 바, 가정여성 이데올로기는 천사 같은 여성이라는 문화적 전형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저항을 대변하는 '괴물' 여성 또한 구조적으로 보면 '천사'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정여성을 공고히 하는 문화적 기획에 공조한다. 즉 괴물과 천사는 서로 연결되어 같은 기능에 복무한다.

본 논문은 두 캐서린을 대치되는 구도에 놓거나 단순 비교 선상에 두지 않는 암스트롱의 관점에 동의하되, 괴물여성과 천사여성으로 대별되는 2세대 캐서린과 3세대 캐서린의 역할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따라서 흠이 없을 수 없는) 시각을 견지하는 넬리라는 3인칭 서술자에 의해 이 둘의 이야기가 서술된다는 사실을 앞서 분석한 내용과 연결하여 그 함의를 도출한다. 『워더링 하이츠』에서 유령은 괴물적 여성성의 이미지이자 괴물여성과 천사여성뿐 아니라 그들과 관계 맺는 남성들을 유령화하고 워더링 하이츠로 회귀하게 하는 힘이다. 동시에 그것은 록우드와 넬리라는, 어수룩하거나 반쯤만 믿음직한 서술자들의 손을 탄다.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두 캐서린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화된 3세대는 2세대 유령을 극복하거나 그 유령과 완전히 상이한 새로운 창조 혹은 발명이기 이전에 그에 버금가게 위태로운 존재로 유령과 공존한다.

『워더링 하이츠』의 독자는 록우드를 따라 워더링 하이츠를 재차 방문할 때 주인 없는 "참나무 침상"(a large oak case; 1.3.16)에 들어가 소녀 캐서린 린턴(Catherine Linton) 유령을 마주친다. "20년 동안 바깥을 헤맸다!"(I've been a waif for twenty years!; 1.3.21)는 소녀 유령은 2세대 캐서린의 어릴 적 모습을 하고 있으며, 생전 그녀의 가다듬어지지 않고 때때로 분출하듯 속내를 펼쳐 보이며 소위 난폭하고 불가해하다고 여겨지는 활달한 모습은 서술자 넬리에 의해 비전형적 면모로 해석되면서 암스트롱이 말하는 괴물여성으로 자리매김한다. 즉 2세대 캐서린은 괴물여성이자 그 연장선에 있는 유령이다. 아이를 낳다가 죽고 소녀 유령으로 황야 지대를 떠도는 2세대 캐서린의 비극과 3세대 캐서린이 맞이하는 가정적 행복이라는 결말은 서로 대비된다. 그러나 암스트롱의 가정소설론에서는 그 둘이 각각 소녀 유령과 가정여성으로 공모하여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고 동일한 효과를 이끌어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3세대 캐서린은 젠더 구분 원칙에 입각해 있으면서 인물들을 가정화하고 개인화한다. 이렇게 주조되는 개인은 탈계급적인 듯이 보이면서 근대 정치사회를 이루는데, 정작

개개인의 정치적 저항력은 괴물여성이 담당하는 수사적 기능에 따라 병리화되고 심리화된다.

꿈에서 그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외부인 관광객에 지나지 않는 록우드마저 간접적으로나마 유령의 자장에 강력하게 구속되는 경험을 할 정도로 『워더링 하이츠』에서 소녀 유령의 위력은 막강하다. 2세대 캐서린의 생사 여부와 별개로 소녀 유령의 존재는 소설이 전개되는 동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히스클리프 및 그가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3세대의 삶의 형태를 유령과 유사한 양상으로 구획한다. 사춘기 소녀에서 가정여성으로 변모하는 3세대 캐서린의 영향력은 2세대 캐서린의 위력에 뒤지지 않는다. 3세대 캐서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헤어턴과의 로맨스는 히스클리프로부터 복수의 동력을 빼앗고 결국 그를 퇴장시키기에 이른다. 2세대 캐서린과 3세대 캐서린은 분명 『워더링 하이츠』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에밀리 브론테는 '누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상황, '누가 누구인지'를 자의적으로 정해둔 상태에서 불굴의 복수를 가동하는 히스클리프, '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워더링 하이츠와 언쇼 가문의 가족사에 접근하는 록우드에 이어, 히스클리프와는 다른 의미에서 '누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의) 흔들림 없는 관점을 견지하는 또 다른 서술자 넬리를 등장시킨다. 넬리는 히스클리프와 흡사 상반되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당위와 규범을 강조한다. 넬리의 신념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점점 더 협소해지는 가족의 형태를 몸소 경험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넓은 의미의 식구에 속하던, 2세대 캐서린과 힌들리를 맡아 기른 유모의 딸 넬리는 점차 하인의 위치로 격하된다. 그러면서 넬리는 히스클리프가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2세대 캐서린과 이자벨라를 축출하는 데 협조한다. 『워더링 하이츠』에 그려지는 마지막 결합 혹은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의 결혼은 그 누구보다 넬리가 반기고

축복하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 “근대적 개인을 재생산하고 존속시키기에 알맞은 가족”(a family suitable to reproduce and maintain the modern individual; Levy 94)을 옹호하는 이는 넬리이다.

이 논문은 『워더링 하이츠』가 특정 형태의 가족을 정당화하거나 선전하는 텍스트이기보다 그와 같은 가족의 형성을 메타적으로 그림으로써 넬리가 그리는 식의 가족 범주의 절대성을 흔든다고 주장한다. 『워더링 하이츠』에 담긴 가족의 역사에는 살아 있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죽어서 유령이 된 이들의 이야기가 포함된다. 유령 이야기는 비단 가족사의 구성 요소에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사의 서술구조를 지탱할 만큼 주요하다.

우선 본론 1장은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을 해부한다.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소녀 유령의 등장,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삶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소녀 유령의 속성, 2세대의 서사에서 유령의 집으로 탈바꿈하는 워더링 하이츠, 워더링 하이츠에서 유사 유령이 되는 록우드의 간접 경험이라는 네 가지 양상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유령성이 구축된다. 이렇게 구축된 유령성의 효과로 2세대인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유령화된다. 퇴장하지 않는 이들의 존재와 폐쇄되는 워더링 하이츠는 유령성의 산실이자 영구한 표본과 같이 남아 회귀와 결박의 역사를 표상한다.

본론 2장은 3세대가 유령성을 탈피하고 개인화하는 과정을 살핀다.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히스클리프 휘하 워더링 하이츠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 앞선 2세대의 유령적 삶과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산다. 둘은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가고, 거듭 돌아가며, 그곳에서 (죽어) 나오지만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 워더링 하이츠라는 유령의 집을 중심으로 패턴 지어지는 이들의 유령적 삶은 그러나 성애에 기반을 둔 로맨스를 기점으로 끝난다.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은 서로 결합하면서 소녀

유령의 속성으로 대표되는 유령성을 벗으며, 책 자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통해 각각 힘을 보강하고 이름을 획득하는 개별적 인물이 된다.

본론 3장은 유령화되는 2세대의 서사와 개인화하는 3세대의 서사를 넬리의 가족사 쓰기라는 맥락에서 통합한다. 넬리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가족으로 수렴되는 가족사를 쓰는 능동적 역사가의 자질을 지닌 서술자이다. 넬리는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의 가족사에서 히스클리프와 2세대 캐서린 그리고 이자벨라를 축출하려고 하지만 넬리의 이야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유령성과 소설의 시작 및 끝 부분에서 반복되는 넬리와 히스클리프의 독대 구도가 2세대와 3세대 및 개인과 유령을 뚜렷이 구별하지 못하게 교란한다. 이렇게 쓰인 가족사는 넬리의 공공연한 바람과는 달리 유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개인이 유령을 계승하고 유령과 개인이 끝없이 길항하는 이야기이다.

1.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

『워더링 하이츠』에 유령들을 등장시킨다는 점 자체가 에밀리 브론테의 독창적 성취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작품 몇몇 군데에서 유령을 활용한다는 사실은 에밀리 브론테가 고딕 문학, 빅토리아 시대 유령 이야기, 당대 민담 문화나 종교적 신념 그리고 낭만주의적 전통 등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Mardsen 144). 그 중에서도 소녀 캐서린 린턴 유령이 등장하는 록우드의 꿈 에피소드는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리얼리즘적이었을 작품에 고딕적 요소를 더하는 상투적 장치"(the set-piece nightmare that brought a Gothic element to otherwise realistic works; Freeman 95)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고딕 문학에 등장하는 유령의 핵심 자질이 독자를 놀라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크랩스(Paula M. Krebs)가 정확히 지적하듯 무섭지 않은 캐서린 린턴 유령과 오히려 그 유령에게 가공할 폭력을 행사해 "우리를 겁먹게 하는"(frightens us; 47) 록우드가 만나는 장면은 "문학에 관습적으로 나오는 유령과의 대면이 아니다"(not a conventional literary encounter with a ghost; 47).

『워더링 하이츠』는 "유령이 출몰하는 집을 중심으로 짜인 플롯"(plots around the haunting of houses; Lutz 102)을 따르면서도, "꼭 유령에 대한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it can denote not only stories about ghosts; Briggs 12) 유령 이야기라는 점에서 "전통적 유령 이야기"(a traditional ghost story; Lutz 102)라는 틀에 전부 포섭되지 않으며, 에밀리 브론테가 앞선 문학 전통과 관습을 계승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정하여 변주한 버전이다. 이 장은 록우드의 꿈에 등장한 소녀를 유령이라고 판명할 수 있는 근거가 텍스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워더링 하이츠』에서 유령성이

구축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소녀 캐서린 린턴이 등장하는 장면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여 유령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품 전반에 걸쳐서 반복될 유령적 속성에 대한 대전제로 쓰인다. 소녀 유령의 속성은 히스클리프와 2세대 캐서린의 삶 이야기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어서, 그와 같은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삶 이야기를 록우드에게 전달하는 넬리의 서술 과정에서 워더링 하이츠가 유령의 집으로 부상한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방문하는 록우드가 비록 유령을 믿지 않는 도시 출신 관광객이지만 그 스스로 유사 유령이 되는 체험을 한다는 점을 짚는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유령성은 다음 단계가 앞선 단계를 반복하는 구조를 띠며 종합적으로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를 유령화한다.

록우드가 만나는 캐서린 린턴은 유령이라고 불리기에 앞서 먼저 소녀로 등장한다. 록우드가 워더링 하이츠에 방문하여 잠든 사이 꾼 꿈에서 캐서린 린턴은 "어린이의 얼굴"(a child's face; 1.3.20)을 하고 손이 "작은"(little; 1.3.20) 소녀 모습이다. 이 소녀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그녀는 집 없는 "방랑자"(a waif; 1.3.21)이다. 그리고 이 인물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는 데서 알 수 있듯 목소리를 가졌지만, 외모나 형체가 불문명하다. 또 소녀 캐서린 린턴은 심한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 자체에 대한 뾰족한 저항이나 말을 하지 않는다. 록우드는 "그것의 손목을 깨진 창틀로 끌어와 침상의 천을 다 적실 정도로 피를 흘릴 때까지 앞뒤로 문질러댔다"(pulled its wrist on to the broken pane, and rubbed it to and fro till the blood ran down and soaked the bed-clothes; 1.3.20)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 장면에서 캐서린 린턴은 "나를 들여보내줘!"(Let me in!; 1.3.20) 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다. 그녀에게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록우드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일이 더 시급해 보인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캐서린 린턴이 유령이라고 불림으로써 유령이 된다는 점이다. 록우드의 꿈에 등장하는 캐서린 린턴의 정체는 모호한 상황이다. 그런데 히스클리프가 개입하고 난 다음 록우드는 자신이 만난 소녀를 "유령"(spectre; 1.3.23)이라고 지목한다. 그러나 그 사실이 당연하지는 않다. 누군가가 꿈에 등장한다고 하여 모두 유령인 것은 아니며, 캐서린 린턴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그러니 자연히 그녀의 삶이나 내력도 알 리 없는—록우드가 캐서린 린턴을 유령으로 판단하는 실마리가 되는 단어는 "방랑자"(waif; 1.3.21) 정도이다. 그러나 이마저 유령을 유령이라고 명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집이 없다고 하여 모두 유령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사람의 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몸이 있는 캐서린 린턴이 대번에 유령이라고 판명되는 것은 전적으로 록우드의 판단이다. 이러한 록우드의 판단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따지기보다 그의 이야기를 이어받는 넬리의 서사를 통해 유령성이 반복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한다.

록우드가 이해하지 못한 채 먼저 만난 상황에서 정립된 캐서린 린턴 유령의 속성은 넬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히스클리프와 2세대 캐서린의 삶에서 되풀이되어 재현된다. 집이 없고, 외모 혹은 형체가 불분명하게 그려지며, 고통 받지만 자신의 고통에 무감하다는 캐서린 린턴 유령의 특징을 어린 시절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히스클리프는 피부색이 다르고 "학대"(ill-treatment; 1.4.31) 받은 역사가 몸짓, 표정, 행동거지에 엉겨 붙은 아이로 등장한다. 고 언쇼 씨가 히스클리프를 외투 자락에서 꺼내면서 "이걸 데려오느라 죽다 살았다. 그래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부인. 생긴 것은 악마에게서 나온 것 마냥 까맣지만."(I was never so beaten with anything in my life; but you

must e'en take it as a gift of God, though it's as dark almost as if it came from the devil; 1.4.30)이라고 둘러대는 말의 요지를 순순히 따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집은 고사하고 출신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히스클리프는 식구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하찮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존재로 취급된다. 단적으로 언쇼 부인은 그를 "저 집시 새끼"(that gipsy brat; 1.4.30)라고 부르면서 몹시 못마땅해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언쇼 씨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히스클리프가 받는 천대는 더욱 적나라해진다.[6] 언쇼 부인의 투덜거림이 상당 부분 언쇼 씨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면, 린턴 부부가 주는 모욕은 히스클리프의 집 없는 이방인으로서 처지를 한층 부각한다. 히스클리프가 사고로 린턴 가문의 저택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린턴 부인(Mrs. Linton)은 언쇼 부인이 그랬듯 히스클리프를 "집시"(a gipsy; 1.6.42)로 식별한다. 이 말은 히스클리프의 이질적인 외모를 꼬집으면서 동시에 언쇼 가문과 워더링 하이츠가 그의 집이 아니라는 판단을 전달한다. 린턴 씨(Mr. Linton)는 한 술 더 떠 히스클리프를 도둑 취급한다. 그는 자신의 추측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자 도리어 "이게 누구람? 캐서린이 어디서 이런 동지를 골랐지? 오호라! 돌아가신 내 이웃께서 리버풀 다녀오시는 길에 얻어온 이상한 물건이구나—인도인이거나 아메리카 원주민이거나 스페인 방랑자겠지."(But who is this? Where did she pick up this companion? Oho! I declare he is that strange acquisition my late neighbor made in his journey to Liverpool—a little Lascar, or an American or Spanish castaway; 1.6.41)라고 하며 이웃인 고 언쇼 씨의 결정을 비아냥거리고 히스클리프를 조롱한다.

집 없는 히스클리프가 겪는 학대는 언어적일 뿐만 아니라

6) 19세기에 '집시'는 극도로 유연한 용어로 쓰여, 인종적 표지로서 출신지를 특정하기보다 극히 이질적인 배경을 아우르는 경우가 다반사다(Nord 20).

신체적이다. 캐서린 린턴 유령이 가공할 양의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 자체에 대한 한 함구하는 모습이듯, 어린 히스클리프 역시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전면화하지 않는 식으로 워더링 하이츠에서 살아남기에 집중한다. 히스클리프를 잘 대해주라는 언쇼 씨의 분부를 일부러 어기고 싶었다고 밝히는 넬리는 "다음 날 아침이면 어디론가 가버렸기를 바라면서 층계참에 그것[히스클리프]을 내버려두었다"(put it on the landing of the stair, hoping it might be gone on the morrow; 1.4.31)고 회상한다. 록우드가 캐서린 린턴 유령을 가리킬 때 "그것"(it; 1.3.20)이라는 말을 써서 젠더를 말하지 않고 자신이 가한 폭력의 성적 차원을 감춘다면(Krebs 47), 넬리는 여기서 동일한 방식으로 히스클리프의 인간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난다. 어린 시절 넬리가 집안의 분위기에 민감하게 호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히스클리프가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비단 넬리만의 바람일 뿐이라고 축소되기 어렵다. 언쇼 씨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적대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날이 바뀌고도 사라지지 않은 히스클리프는 언쇼 씨의 "어릴 적 죽은 아들의 이름"(the name of a son who died in childhood; 1.4.31)인 '히스클리프'를 이름으로 얻는다. 당대에 죽은 아이의 이름을 물려주고 받는 일이 흔했다고 하더라도 무명이던 히스클리프가 이름을 얻는 상징적 과정이 그의 독자성을 강화하기보다 죽은 이의 존재 혹은 죽음 자체를 상상하게 하는 유령 같은 면모를 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죽음에 가까운 경험들을 불사하면서까지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히스클리프는 캐서린 린턴 유령과 닮은꼴이다. 힌들리는 히스클리프가 자신의 몫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특권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번번이 힘과 욕설로 히스클리프를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히스클리프는 망아지 교환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힌들리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잠시 "쓰러질"(down he fell; 1.4.32)지라도 금세 "몸을 추슬러 일어난다"(staggered up immediately; 1.4.32). 눈앞의 고통보다도 자신의 목표를 관철하는 데 집중하고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평정심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할 일을 하러 가는"(how coolly the child gathered himself up, and went on with his intention; 1.4.33) 히스클리프의 모습을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도 계속 기억할 정도로 넬리는 깊은 인상을 받는다. 홍역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앓고도"(was dangerously sick; 1.4.31) 끝내 살아남는 히스클리프는 끊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통에 무감한 듯 행동하여야만 워더링 하이츠에 머물 수 있다. 워더링 하이츠를 집으로 삼지는 못하면서도 계속 그곳을 배회한다는 점에서 꼭 캐서린 린턴 소녀 유령을 닮은 히스클리프는 "실제로 죽기 전부터도 이미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이다"(Even before his death, he is the spectre of *Wuthering Heights*; Vine 176).

여기까지 넬리가 록우드에게 전해주는 히스클리프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록우드의 꿈속에 등장한 소녀 캐서린 린턴 유령의 속성들을 반복 재현하는 얼개를 따른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유령 형상의 존재로부터 짐작해볼 수도 있지만 유년기 캐서린 언쇼의 삶 이야기 또한 유사한 패턴을 따라 서술된다는 점을 짚어보려 한다. 2세대 캐서린은 집을 잃고, 고통을 함구하며 목표를 관철하려 하지만 끝내 좌절하는 소녀 캐서린 린턴 유령의 모습으로 요약되는 삶을 산다. 1세대 언쇼 씨가 세상을 뜬 이후 워더링 하이츠를 점령한 힌들리는 사실상 캐서린의 집을 박탈한다. 이는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와 다른 지위에 있지만 히스클리프와 함께 일상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난다. 힌들리의 "부주의"(carelessness; 1.6.39)로 인해 아이들이 일요일에 교회 참석을 건너뛸 때면 힌들리는 도리어 "히스클리프를

채찍질하게 하고, 캐서린은 저녁이나 야참을 굶기도록 지시한다"(order Heathcliff a flogging, and Catherine a fast from dinner or supper; 1.6.39)는 데서 알 수 있듯 워더링 하이츠는 힌들리의 전권에 따라 통치되는 공간이자 어릴 적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자의적 처벌을 견뎌야 하는 곳이다.

캐서린은 신체적·심적 고통을 감내하고 일견 그녀에게 새로운 집이 될 수 있는 듯이 보이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들어가지만 그 경험은 최종 정착지를 찾게 되는 여정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히 떠도는 삶의 서막이다. 히스클리프와 함께 힌들리의 감시망에서 도망치던 캐서린이 린턴 집안을 지키는 불독에게 발목을 물렸을 때 "소리 지르지 않았고—절대! 그녀는 그녀가 미친 소의 뿔에 찔렸어도 소리를 지르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did not yell out—no! She would have scorned to do it, if she had been spitted on the horns of a mad cow; 1.6.41)라는 히스클리프의 자랑은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도 내색하지 않거나 아픔에 무감한 듯 행동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 언쇼 가문 아이들의 삶을 보여준다. 개에게 물리는 신체적 고통을 겪고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들어가는 캐서린의 경험은 곧 히스클리프와 에드거 린턴 사이에서 분열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심적 고통의 경험으로 연장된다. "모자 끈은 내가 풀어 줄게"(let me untie your hat; 1.7.45)라고 말하는 힌들리의 아내 프랜시스(Frances)의 말은 캐서린이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서 보낸 5주 동안 겪은 변화를 집약한다. 야외에서 거칠게 뛰놀던 캐서린이 예쁜 옷가지며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싼 이들의 달라진 매너를 좋아하고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빠 부부가 하듯이 히스클리프를 천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 대등하던 관계가 오빠 때문에 명백히 구획되는 동시에 에드거와 가까워지는 동안 "린턴과 결혼하면

히스클리프의 처지가 나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고 오빠 손아귀에서 그를 빼낼 수 있다"(if I marry Linton, I can aid Heathcliff to rise, and place him out of my brother's power; 1.9.71)고 전망한다. 이때 캐서린은 히스클리프가 하인보다 못한 처지로 격하됨에 따라서 그와 결혼하면 "거지"(beggars; 1.9.71) 신세를 면하기 어려우며 이는 자신의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나 캐서린의 계획은 분열된 마음을 반영한다. "넬리, 내가 히스클리프야—히스클리프는 항상, 언제나, 내 마음에 있어—기쁨으로서가 아니야. 내가 내 자신에게 항상 기쁨인 건 아니듯이—내 자신으로서지—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이별을 입에 올리지 마—말도 안 돼, 그리고—"(Nelly, I *am* Heathcliff—he's always, always in my mind—not as a pleasure, any more than I am always a pleasure to myself—but, as my own being—so, don't talk of our separation again—it is impracticable; and—; 1.9.71-72) 라는 대사를 통해 캐서린 자신과 히스클리프가 나뉠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한다. 캐서린은 이처럼 심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고안한 자구책인 결혼을 감행한다.

캐서린의 예상과 달리 실제 에드거와의 결혼생활과 히스클리프의 관계는 공존하지 못한다. 소녀 캐서린 린턴 유령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유령이 고통 자체보다 내적 답답함을 호소하듯, 위 사실은 히스클리프와 에드거 사이에서 캐서린이 실감하는 답답함을 통해 표출된다. 에드거의 청혼 수락 일화를 우연히 부분적으로 엿듣고 낙담하여 3년간 자취를 감춘 히스클리프가 돌아와 저돌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에드거의 시기심과 불안감이 증폭하는 전 방위적 압력 속에서 캐서린의 몸은 "뇌염"(brain fever; 1.13.116)을 겪으며 만신창이가 된다.

> 린턴 부인은 평소처럼 헐렁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가벼운 숄을 어깨에 걸친 채 창문이 열린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병을 앓으면서 두툼하고 기다란 머리카락이 일부 빠져서, 지금은 그저 머리를 빗어 관자놀이와

목으로 늘어뜨렸죠. 외모가 분명 달라졌는데, 제가 히스클리프에게 말한 대로, 그녀가 차분할 때면 지상의 존재 같지 않은 아름다움이 묻어났어요.

Mrs. Linton sat in a loose, white dress, with a light shawl over her shoulders, in the recess of the open window, as usual. Her thick, long hair had been partly removed at the beginning of her illness, and now she wore it simply combed in its natural tresses over her temples and neck. Her appearance was altered, as I had told Heathcliff, but when she was calm, there seemed unearthly beauty in the change. (2.1.135-36)

이 장면에서 캐서린은 "죽을 운명이었던"(doomed to decay; 2.1.136)" 모습으로 그려진다. 창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벌써 록우드의 꿈에 나타났던 소녀 캐서린 린턴 유령을 연상시키는 캐서린의 외모 또한 두루뭉술한 언어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소녀 유령과 연결된다. 극심한 고통이 연속된 이후에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게 했던 목표가 좌절된 상황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앉아 죽어가는 캐서린의 모습은 소녀 캐서린 린턴 유령이 놓인 상황과도 포개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소녀 캐서린 린턴 유령의 속성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삶 이야기를 관통한다. 이제 그 유령이 실은 몇 가지 단서를 기반으로 불현듯 유령으로 지칭된다는 특징 역시 이들의 삶 이야기에서 반복된다는 점을 살펴보자. 록우드가 꾼 꿈은 캐서린 린턴의 형상을 유령으로 단정하는 데 일조할 뿐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히스클리프까지 유령으로 만든다. 세입자 록우드의 워더링 하이츠 방문을 계기로 히스클리프의 목표가 복수의 완성으로부터 록우드는 만났고 자신은 아직 만나지 못한 캐서린 유령과의 재회 쪽으로 급선회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죽음을 예감하지도 않고, 죽음을 바라지도 않아—왜 그래야 해? 몸 튼튼하지, 생활 절도 있지, 직업적 위험도 없지.

> 나는 검은 머리 한 올 남지 않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 있을 거고 그래야 마땅해. 그런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숨을 쉬려면 일부러 의식해야 해—심장더러 뛰라고 알려줘야 할 판이야! 뻣뻣한 용수철을 거꾸로 젖혀야 하는 꼴이지. . . . 바라는 건 하나야. 내 온 존재와 능력이 그것만을 바라고 있어. 너무 오랫동안 말이야. 흔들림 없이 그랬지. 성사될 거고 머지않아 그러리라는 확신이 있어. 내 존재를 삼켜버린 바람이니까. 나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완전히 지쳐버린 거야.
>
> I have neither a fear, nor a presentiment, nor a hope of death—Why should I? With my hard constitution, and temperate mode of living, and unperilous occupations, I ought to and probably *shall* remain above ground, till there is scarcely a black hair on my head—And yet I cannot continue in this condition!—I have to remind myself to breathe—almost to remind my heart to beat! And it is like bending back a stiff spring. . . . I have a singly wish, and my whole being and faculties are yearning to attain it. They have yearned towards it so long, and so unwaveringly, that I've convinced it *will* be reached—and *soon*—because it has devoured my existence—I am swallowed in the anticipation of its fulfillment. (2.19.280-81)

위 대사는 히스클리프가 넬리에게 3세대를 향한 복수가 "다 무슨 소용이냐?"(where is the use?; 2.17.279)고 반문한 다음에 나온다. 따라서 여기서 히스클리프가 말하는 오랜 염원의 성취란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 2세대의] 대표자들"(their representatives; 2.19.279)인 3세대를 이용한 복수의 성취와 다르다. "볼품없는 결론"(a poor conclusion; 2.19.279)이라는 말과 함께 복수는 미완의 과제로 봉인되고 히스클리프의 오랜 소망은 순식간에 복수로부터 캐서린 유령을 만나는 것으로 교체된다.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온 히스클리프가 비사교적이고 비인간적인

유령처럼 살아간다는 록우드와 넬리의 보도는 이론의 여지가 적다. 히스클리프는 다만 캐서린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부인"(refusal)으로서 죽은 캐서린을 마음에 품고 "유령 같은 삶을 산다"(lives a spectral life; Vine 179). 그러나 위 장면에 뒤따르는 히스클리프의 죽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유령이라고 명명하는 데서 알 수 있듯 히스클리프는 단지 '유령처럼' 살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캐서린 유령을 따라서 실제로 유령이 된다. 힘이 없이 늘어진 모습하며 "섬뜩하게"(unearthly; 2.1.135) 달라진 얼굴의 분위기를 가리키는 말은 캐서린이 죽어가던 과정을 전달하던 넬리의 언어와 상통한다. 히스클리프는 죽기 직전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넬리와만 접촉하는 동안 "핏기 없는 낯빛"(bloodless hue; 2.20.283), "섬뜩한 창백함"(ghastly paleness; 2.20.285)을 띠면서 핏기 없는 유령(Torgerson 120)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마침내 히스클리프가 죽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히스클리프와 여자"(Heathcliff and a woman; 2.20.291) 유령을 목격한다. 그들 중 일부가 이미 고인이 된 "히스클리프가 걸어다닌다"(he *walks*; 2.20.291)고 성경에 걸고 맹세하는가 하면, 교회, 황야 일대, 워더링 하이츠 내부에서 그를 보았다는 증언이 따라 나온다. 예컨대 조셉은 "히스클리프가 죽은 이래, 비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방 창문으로 바깥을 볼 때 두 사람이 보인다"(affirms he has seen two on'em, looking out of this chamber window, on every rainy night since his death)고 하고, 넬리는 워더링 하이츠 주변에서 유령을 보았다며 울고 있는 어린 남자 아이 일화를 들어 히스클리프와 "유령"(phantoms; 2.20.291)의 출몰을 부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록우드가 만난 캐서린 린턴 유령의 속성은 넬리의 이야기 속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면서 유령성을 구성한다. 그렇다고 할 때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은 워더링 하이츠에 유령들을 만들어내고 유령들이 모여드는 유령의 집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유령의 출몰지가 "시체가 매장된 곳"(the location of body's physical remains)이 아닌, 그가 유령이 되기 전에 살던 집이라는 점은 에밀리 브론테의 시에서부터 일관되게 드러나는 특징이며,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이 집에 대한 갈망과 결부되어 있다"(spectrality in *Wuthering Height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longing for home; Marsden 148)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워더링 하이츠 자체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유령들이 원하는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워더링 하이츠는 넬리의 이야기에서 그들을 유령으로 만드는 집으로 기능한다. 넬리의 이야기에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워더링 하이츠에 오고, 다시 오며, 그곳을 떠났다가, 유령이 되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밟는다. 조셉과 하인 하나 정도가 워더링 하이츠를 지키고, 나머지는 "폐쇄될"(be shut up) 예정이라는 넬리의 말에 "거기 살고 싶어 할 유령들이 쓰라고 말이죠."(For the use of such ghosts as choose to inhabit it; 2.20.291)라고 대꾸하는 록우드의 어투는 농담조이지만, 사실상 워더링 하이츠를 하루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넬리나, 3세대를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이 다시 피하고 싶었다"(irresistibly impelled to escape them again; 2.20.292)며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는 록우드는 모두 유령들의 자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만난다. 이들의 대화는 유령들이 재회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워더링 하이츠를 비워준다기보다 유령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 워더링 하이츠를 회피한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록우드는 유령의 집 워더링 하이츠를 몸소 경험하면서 유사 유령이 되는 체험을 한다. 그의 체험은 소설에서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유령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을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록우드는 소설이 전개되는 동안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와 워더링 하이츠를 말 그대로 오갈 뿐 아니라 영국의 핵심과 주변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집 없는 히스클리프 및 캐서린과 접점을 지니는데, 이 접점은 그의 자신의 개성보다 그가 시대적 전형 혹은 유형에 가깝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한편 상대적으로 히스클리프나 캐서린의 고유함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록우드는 패러디 버전에 가깝기 때문이다.

암스트롱은 이 당시 영국 제국이 겪은 변화를 두 갈래로 갈무리한다. 영국 내부에서는 산업화와 연동되어 중간계급의 입지가 공고해지던 중이었고, 대외적으로는 영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인들과의 인종적 관계를 재개념화"(reconceptualize their relationship as a race to the peoples of Africa and Asia; Armstrong 1992, 245)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암스트롱은 이러한 두 가지 흐름에 수반된, 문화적이면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역시 영국의 근대화라는 환상 즉 주변부와 핵심부의 분리 및 공간적인 차이를 선형적 시간상의 차이로 이해하는 인식 형성에 민담이나 사진과 함께 가담하고 일조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록우드는 전형적인 관광객, 언쇼 가문의 이야기는 타지 이야기인 동시에 시간상으로 뒤처진 옛날이야기이다. 지역을 관광하고 기념품을 수집, 유통하면서 시간상으로 앞선 근대적 핵심부 영국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낸 유행은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끝이 없어"(limitless; 247)보인다고 여겨지던 영국을 19세기 말에 이르러 "진짜 영국의 흔적을"(any traces of an authentic England; 247) 지방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바꾸어 놓았다.

외지인의 눈으로 지방 사람들을 곧 문화가 뒤진 야만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고양되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방 사람들도 결국 다 비슷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록우드의 넘겨짚기 식 태도는 암스트롱이 말하는 1830년대에서 1840년대에 걸쳐 있던 "관광객 유행"(this particular wave of tourists; 247)의 주역인, 영국 각지를 관광하면서 소위 영국적인 것들을 수집하고 유통시키던 "상대적으로 살 만한 영국인들"(relatively well-to-do Englishmen; 246)의 사례에 잘 들어맞는다. 그리고 그 자신이 도시 출신 관광객이라는 정체성에서부터 록우드는 (출신지가 분명 있을 테지만) 그 자체로는 모호하고 정보도 알려진 바 없는 뜨내기라는 점이 강조된다.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집이 없이 워더링 하이츠의 세계에 당도한다는 점에서 록우드는 히스클리프와 공통점을 지닌다.

세 들어 살 집이 있어도 록우드는 사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록우드는 호방한 관광객 행세를 하긴 하나 막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좌불안석의 상태에 있다. 그의 연애사가 이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아니다, 내가 너무 내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특징을 주제넘게 그에게 부여하는 것 같다. 히스클리프 씨가 앞으로 친분을 맺고 지낼 사람을 만났을 때 뒤로 빼는 까닭은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와 완전히 다를 수 있지. 내 기질이 특이한 것이라고 생각하자. 친애하는 어머니의, 나더러 편안한 가정을 꾸릴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나는 지난여름 입증해버리고 말았으니까.
>
> No, I'm running on too fast—I bestow my own attributes over-liberally on him. Mr. Heathcliff may have entirely dissimilar reasons for keeping his hand out of the way, when he meets a would-be acquaintance, to those which actuate me. Let me hope my constitution is almost peculiar: my dear mother used to say I should never have a comfortable home, and only last summer I proved myself perfectly unworthy of one. (1.1.3)

여기서 록우드는 무뚝뚝한 히스클리프를 만나자마자 감상에 흠뻑 젖어,

여성들과 감정 교류나 소통에 능하지 못하고 급기야 여성 공포증을 앓고 있는 기질을 들어 자신이 비사교적인 히스클리프와 닮았다고 주장해보려다가 스스로 오류를 알아차리고 황급히 의견을 회수한다. 가까운 과거에 록우드는 휴양지에서 만난 아리따운 여인에게 눈독을 들이다가 정작 그녀가 "눈길을 주자"(looked a return) "차갑게 움츠러들어 마치 달팽이처럼"(shrunk icily into myself, like a snail; 1.1.3) 행동해 일을 그르친다. 그러나 이 소극성은 록우드가 해설하는 것처럼 그 자신의 고유한 특징이라기보다는 "록우드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두려워하는 빅토리아 시대 중간계급 남성이며, 욕망을 인정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그의 실패는 캐서린을 향한 히스클리프의 위대한 열정과 너무나도 다르다"(Lockwood is a caricature of middle-class Victorian male fears of female sexuality, and his failure to express or accept desire could not be more different from the grand passion of Heathcliff for Catherine; Krebs 47)는 점을 알려줄 뿐이다. 즉 록우드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남성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요크셔까지 와서 3세대 캐서린이 이 지역 출신인지 타지 출신인지에 관음증적 관심을 보이며 신붓감을 물색하는 제스처를 반복하는 중이다. 그가 워더링 하이츠라는 공간을 경험하는 내내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되풀이된다.

호기심 어린 경계인이자 겉도는 주변인으로서 록우드의 불안정한 접속이 집 없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유령성을 미약한 정도로 또 코믹하게 모사한다면, 록우드는 워더링 하이츠를 통과하며 유령이 된다는 『워더링 하이츠』의 공식 또한 경험한다. 앞서 살펴본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유령성이 워더링 하이츠라는 집을 통해 구성된다고 할 때 록우드 또한 그와 유사한 체험을 한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워더링 하이츠에 오고, 다시 오며, (죽어서) 나가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고 (유령으로) 돌아온다. 캐서린은 집주인의 딸로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와, 아버지가 죽고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경험한 뒤 다시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왔다가 죽음이 예정된 결혼을 하여 그곳을 나가고 유령으로 돌아온다. 히스클리프 역시 고 언쇼 씨의 코트 자락에 둘둘 말려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왔다가 3년간 그곳을 떠나지만 이내 돌아오고, 복수를 포기하면서 죽은 다음 유령으로 그곳에 돌아온다.

유령의 집으로서 워더링 하이츠를 알기 전에 록우드는 그곳과 그곳에서의 삶을 낭만화한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 "염세주의자"(misanthropist; 1.1.1)라고 하는 록우드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와 워더링 하이츠를 한데 묶어 현세와 동떨어진 곳으로 인식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는 이곳이야말로 자신과 같이 세상에 신물이 난 이에게 안성맞춤이라며, "사회의 소란함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removed from the stir of society; 1.1.1) 천국 같은 곳이라고 흥분조로 외친다.

> 내가 말 탄 채로 다가갔을 때 그가 검은 눈동자를 의심에 차 눈썹 아래로 거두고, 내가 이름을 밝히자 방심을 늦추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며 조끼 속으로 손가락들이 깊숙이 들어갈 때, 그가 얼마나 내 마음을 샀는지 그는 알지 못할 것이다.
> "히스클리프 씨?" 내가 말했다.
>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 He little imagined how my heart warmed towards him when I beheld his black eyes withdraw so suspiciously under their brows, as I rode up, and when his fingers sheltered themselves, with a jealous resolution, till further in his waistcoat, as I announced my name.
> "Mr. Heathcliff?" I said,
> A nod was the answer. (1.1.1)

록우드를 대면하고는 그에게 다가가기보다 물러서며, 말을 하기보다 말

하지 않는 히스클리프를 보고 록우드가 더욱 큰 호감을 느끼는 것도 워더링 하이츠 일대에 대한 그의 낭만화와 연결된다.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워더링 하이츠로의 귀환이 각각 결혼, 복수와 연관되어 있다면 록우드의 워더링 하이츠 재방문은 그가 겪고 있는 여성 문제와 결부된다. 지난 날 워더링 하이츠를 재방문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도 날이 바뀌자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록우드를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부터 쫓아내 워더링 하이츠로 떠미는 이는 "빗자루와 난로 옆에 두는 석탄 통에 둘러 싸여 무릎을 꿇고 있던 어린 여자 하인"(a servant-girl on her knees, surrounded by brushes and coal-scuttles; 1.2.6)이다. 록우드는 그토록 뜸들이던 모습을 뒤로 하고 곧바로 "모자를 집어"(took my hat)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뛰쳐나가 워더링 하이츠 정원 문 앞에 당도한다.

록우드는 말로는 자신이 이성에게 인기가 좋다고 하고, 신붓감을 물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여성을 피한다.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하녀를 보자마자 도망친 그는 워더링 하이츠에 도착해서 히스클리프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3세대 캐서린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3세대 캐서린의 정체를 알게 된 다음에는 그녀로부터 멀어져서 이른 꿈속에서 2세대 캐서린 유령을 만난다. 먼저 3세대 캐서린과 대화를 시도할 때 그는 첫 번째 방문에서 개에게 한바탕 당했던 경험을 감추고 동일한 개를 구실 삼아 그녀에게 접근한다.

> [지난 번 방문 때 나를 덮쳤던 개] 주노를 부르자, 두 번째 만나니만큼 나를 알고 있다는 표시에서인지, 감사하라는 듯 꼬리 끄트머리를 흔들었다.
> "예쁘네요!" 내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새끼는 나눠주실 건가요?"
> "내 개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안주인이 히스클리프도 못했으리만치 까칠하게 답했다.
> "아, 부인께서 애지중지 하는 녀석들은 이것들인가보군요!" 내가 몸을 돌려 고양이 비스무리한 것으로 꽉 찬 듯이 보이는 칙칙한 쿠션 쪽을

보면서 말했다.

"애지중지라니." 그녀의 대답은 경멸조였다.

불행히도 내 눈에 든 것은 죽은 토끼 더미였다. 나는 헛기침을 한 번 더 하고, 벽난로 쪽으로 물러나서, 그날 오후의 거친 날씨에 대한 논평을 반복할 따름이었다.

. . . . and called the villain Juno, who deigned, at this second interview, to move the extreme tip of her tail, in token of owning my acquaintance.

"A beautiful animal!" I commenced again. "Do you intend parting with the little ones, madam?"

"They are not mine," said the amiable hostess more repellingly than Heathcliff himself could have replied.

"Ah, your favourites are among these!" I continued, turning to an obscure cushion full of something like cats.

"A strange choice of favourites," she observed scornfully.

Unluckily, it was a heap of dead rabbits—I hemmed once more, and drew closer to the hearth, repeating my comment on the wildness of the evening. (1.2.7)

이 장면에 이어, 3세대 캐서린을 히스클리프의 부인으로 착각하고, 그 둘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죽은 린턴 히스클리프를 헤어턴 언쇼로 혼동하는 록우드를 보고 히스클리프가 "추측을 하는 족족 전부 빗나가네요!"(Unhappy in your conjectures, sir!; 1.2.10)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온다. 록우드가 워더링 하이츠가 사체나 죽음으로 득실거리는 공간이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록우드는 지난여름 바닷가에서 옮겨온 이래 살아있고 혼인 상대가 될 수도 있는 젊은 여성들보다 차라리 유령과 악마가 바글거린다는 "소굴"(such a den; 1.3.22)인 워더링 하이츠의 내부로 점점 이끌린다.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 워더링 하이츠는 그곳으로 돌아온 이들을 살려 내보내지 않는다. 이는 록우드에게도

해당된다. 위험한 집에 자신의 몸을 들인 록우드에게 대가를 치르게라도 하는 듯이 워더링 하이츠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추가 시간을 소요하게 만든다. 두 번째 방문에서 록우드가 속수무책이 된다는 사실은 변덕스러운 날씨를 통해 극화된다. 워더링 하이츠에서 동물 사체와 죽음의 역사를 의도치 않게 하나 둘 맞닥뜨리다 정신을 차린 록우드를 거센 눈발과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쌓인 눈이 가로막는다. 록우드가 두 번째 방문에서 경험하는 유령의 집으로서의 워더링 하이츠는 두 번째 개떼의 습격 상황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질라(Zillah)의 도움으로 가게 되는 방에 있는 "꼭대기 부분 모서리가 잘린 모습이 꼭 마차 창문 같아 보이는 커다란 떡갈나무 상자"(a large oak case, with squares cut out near the top resembling coach windows) 안에 있는 침상을 배경으로 한다.

록우드는 여기서 꿈을 꾸면서 다시 한 번 여성에게 다가가는 데 실패한다. 그는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궁금해 하는 동시에 거부한다. 2세대 캐서린이 남긴 글자체며 성서, 일기장의 흔적들 틈에 잘 스며드나 싶던 그는 "하얀 글자들의 빛이 어둠에서 튀어나오더니 유령처럼 생생하고 공기 중은 캐서린들의 이름으로 우글우글해졌다. 그 도드라지는 이름들을 치우려고 몸을 일으키는데"(a glare of white letters started from the dark, as vivid as spectres—the air swarmed with Catherine; and rousing myself to dispel the obtrusive name; 1.3.15) 이어지는 꿈 중 캐서린의 손에 의도치 않게 자신의 손을 건넨다. 이 장면에서 그는 캐서린을 잡고는 동시에 떨쳐버리고 싶어 한다. 이때, 앞서 해변 여인의 호응을 계기로 싸늘하게 움츠러들었던 경험을 연상시키면서 록우드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ice-cold; 1.3.20)고 느낀다. 여성과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빗나가는 경험은 점점 강도가 높아져 이 대목에서 그가 느끼는 공포감은 극에 달한다. 정작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이는 캐서린 린턴 유령인데, 록우드는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잔인해졌다”(Terror made me cruel; 1.3.20)며 캐서린 린턴의 손목에서 피가 흘러 침구를 “적실”(soaked; 1.3.20) 정도로 손목을 깨진 유리 창문에 문지르는 공포스러운 행동을 반복한다.

록우드는 두 차례에 걸친 워더링 하이츠 방문 끝에 반송장이 되어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돌아온다. 워더링 하이츠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유령이 되어 나온다는 공식을 그도 피하지 못한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비하면 그의 부상은 경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가볍지만은 않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가정부 넬리 및 하인들에게도 그렇고, 그 자신이 느끼는 바로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그려진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 밤사이, 그가 살아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접고, “시체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how they must set about the search for my remains; 1.3.26) 궁리했다는 하인들의 수선 섞인 환대를 누리면서 록우드는 히스클리프의 집에서 죽은 토끼로 밝혀졌던 실체 없는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새끼 고양이”(a kitten; 1.3.26)에 스스로를 빗댄다.

록우드는 워더링 하이츠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며, 반송장이 되어 나오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넬리에게 집주인 가족 이야기를 청하는 과정에서 워더링 하이츠 이야기를 듣고, 다시 들으며, 런던으로 도망치지만 다시 넬리를 방문한다. “그렇게 딘 부인의 이야기가 끝나고”(Thus ended Mrs. Dean’s story; 2.16.257) 그는 워더링 하이츠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세계를 완전히 뜨려고 마음먹는다. “힘을 재빨리 회복하는 중”(I am rapidly recovering strength; 1.16.257)이라는 그의 말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 이 지방을 떠나고 싶은 그의 바람을 반영한다. 하지만 전셋집을 떠난 지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록우드는 친구와 사냥 차 이 지역 근방을 방문했다가

“충동”(A sudden impulse; 2.18.264)에 사로잡혀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간다. 즉 그 또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유령처럼 워더링 하이츠를 쉽사리 떠나지 못한다. 이처럼 록우드는 먼저는 워더링 하이츠라는 유령의 집을 통과하며, 그런 다음 넬리의 유령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유사 유령이 되는 체험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은 총 네 양상에 걸쳐 변주된다. 첫째로 캐서린 린턴 소녀 유령의 속성이 제시된다. 그 다음 넬리의 이야기를 통해 펼쳐지는 히스클리프와 2세대 캐서린의 삶에서 소녀 유령의 속성이 거듭 재현된다. 그리고 넬리의 이야기는 워더링 하이츠를 유령을 만들어내는 곳이자 유령들이 돌아오는 곳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록우드는 바로 그러한 워더링 하이츠를 경험하고, 넬리의 이야기를 청해 들으면서 유사 유령이 되는 체험을 한다. 『워더링 하이츠』는 록우드가 패러디 버전이자 일종의 계기로 등장함으로써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유령의 이야기가 전면화될 수 있는 구조이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유령으로 재현되면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 개별화되지 않은 존재들로 부상하며 시대적 전형이나 유형에 가까운 록우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개성을 지닌다.

2. 3세대의 개인화

1장에서는 『워더링 하이츠』에서—'소녀 유령의 등장, 넬리가 들려주는 히스클리프와 2세대 캐서린의 삶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유령을 만들어내고 유령이 모여드는 집으로 자리매김하는 워더링 하이츠, 워더링 하이츠를 통과하면서 유사 유령이 되는 경험을 하는 록우드'라는—네 양상에 걸친 변주를 통해 형성되는 유령성 및 그 효과로 유령이 되는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를 살펴보았다. 히스클리프의 복수 플롯을 따라 전개되는 『워더링 하이츠』 제2권은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의 볼모로 잡혀 워더링 하이츠에 결속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들이 워더링 하이츠를 이따금 들락날락할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오랫동안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유령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은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이 결국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2장은 『워더링 하이츠』가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유령화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이 개인화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 먼저 1장에서 도출한 유령성을 바탕으로 『워더링 하이츠』 상당 부분이 전개되는 동안 3세대 또한 2세대 유령들과 다름없는 삶의 패턴을 밟는다는 점을 살펴본다. 그 다음 소설 말미에서 유령성으로부터 눈에 띄게 멀어지는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의 모습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유령이 되지 않는 데에 성애에 기반을 둔 로맨스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짚는다.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은 젠더화된 존재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개인이 된다.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은 유령들의 워더링 하이츠 (재)방문과 회귀 패턴을 따른다. 1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그리고 록우드는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비유적이거나 축자적인 의미에서 죽어) 나온 다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으로 돌아가며 (유사) 유령이 된다. 마찬가지로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도 워더링 하이츠에 거듭 들어가며,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다가도 끝내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그곳으로 계속 되돌아가는 형태의 삶을 오랫동안 지속한다. 특히 헤어턴은 3세대 중 제일 먼저 태어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히스클리프가 가장 직접적인 복수 대상으로 삼은 힌들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일찍이 유령의 집에서 유령처럼 사는 삶을 시작한다.

헤어턴은 "유구한 언쇼 혈통의 마지막 자손"(the last of the ancient Earnshaw stock; 1.8.55)으로 워더링 하이츠에 진입한다. 곧이어 그는 어머니인 프랜시스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뜨면서 "[넬리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진다"(fell wholly into my hands; 1.8.56). 여기서 "떨어진다"(fall)는 말은 다만 넬리가 유모로서 헤어턴을 돌보게 되었다는 뜻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헤어턴은 아내를 잃고 크게 상심한 아버지의 무관심이 더 심해진 상황이라는 달라진 조건 하에 조금 다른 의미에서 워더링 하이츠에 '다시' 들어가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진다"는 말은 히스클리프가 힌들리에게 당하였던 복수의 핵심이자 헤어턴에게 앙갚음하는 "격하"(degradation; 2.21.188)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기능도 한다.

헤어턴의 지위 하락은 그가 워더링 하이츠에서 유아 시절 경험하는 난간 추락 사고에서 상징적으로 구체화된다. 힌들리가 술주정하면서 가위로 헤어턴의 귀를 "자르면 더 잘생긴 모습이 되지"(would be handsomer cropped; 1.9.64) 않겠느냐며 휘두르는 가정 폭력 현장에서

헤어턴은 유사 죽음을 경험한다. “그는 갑자기 튀어 오르더니 자기를 잡고 있는 부주의한 손아귀에서 빠져 나와서, 떨어졌다”(he gave a sudden spring, delivered himself from the careless grasp that held him, and fell)고 묘사된다.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몸을 내던진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원수에 의해 구조되는 이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바로 그 원수에게 넘겨지는 순간을 포착한다. “그는 그의 추락을 막고, 그의 발을 바닥에 딛게 해 그를 세운 다음”(he arrested his descent, and setting him on his feet; 1.9.65) 이라는 서술에서 히스클리프와 헤어턴은 모두 “그”로 지칭된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헤어턴과 히스클리프가 겹쳐 보이는 효과가 생긴다. 이때 이미 히스클리프는 헤어턴에게 (어릴 적 소녀 유령의 속성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헤어턴은 난간 추락 일화를 기점으로 유령의 삶이라는 패턴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워더링 하이츠를 방문한 넬리에게 목격되는 헤어턴의 모습은 영락없는 유령이다. 워더링 하이츠에 도착하기 전 갈림길에서 넬리는 어릴 적 힌들리의 환영을 본다. 이어서 워더링 하이츠에 도착한 넬리는 “유령이 나를 앞질러서 먼저 와 있었던 것”(The apparition had outstripped me; 1.11.95)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넬리는 어린 헤어턴이 문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 힌들리와 꼭 닮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넬리의 속뜻을 풀어 이해하기 이전에 일단 “유령”이라는 말이 전하는 느낌에 집중해보자면 헤어턴은 넬리가 그를 “헤어턴, 내가 그를 [워더링 하이츠에 두고] 떠난 10개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 헤어턴”(Hareton, *my* Hareton, not altered greatly since I left him, ten months since; 1.11.95)으로 식별하기에 앞서 유령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넬리의 워더링 하이츠 방문 일화에서 헤어턴이 헤어턴으로 식별되는 과정은 비교적 짤막하며 헤어턴이 유령화되는 서술들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서 헤어턴의 인간성보다는 유령성이 더 부각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 헤어턴은 헤어턴으로 밝혀지기 이전에 힌들리의 환영으로 표현되는데, 그가 헤어턴으로 드러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히스클리프의 자식인 양 그려진다. 넬리가 헤어턴더러 아버지에게 자신의 방문 소식을 전해달라고 청하고 나서 헤어턴이 퇴장한 이후 넬리가 기대했던 "힌들리 대신 히스클리프"(instead of Hindley, Heathcliff)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히스클리프가 나오자 넬리는 자신이 "마귀를 소환한 것처럼"(as if I had raised a goblin; 1.11.96) 놀라 길을 내달려 도망쳤다고 말한다. 헤어턴과 히스클리프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매개로 하여 연결될 뿐더러 초현실적 형상을 연상시킨다는 공통점으로도 다시 한 번 연결된다.

헤어턴은 넬리뿐 아니라 이자벨라와 히스클리프에 의해 여러 차례 2세대 유령들과 결부된다. 이자벨라는 히스클리프와 결혼하고 찾아간 워더링 하이츠에서 헤어턴의 모습 중에서도 특히 "[2세대] 캐서린을 닮은 눈과 입가"(a look of Catherine in his eyes and about his mouth; 1.13.119)를 강조하여 전달한다. 그런가 하면 죽기 얼마 전 히스클리프는 "5분 전만 해도, 헤어턴은 한 인간이 아니라 내 젊은 시절의 화신으로 보였다"(Five minutes ago, Hareton seemed a personification of my youth, not a human being; 2.33.279)고 말한다. 즉 넬리나 이자벨라 그리고 심지어 히스클리프는 헤어턴을 마주할 때면 어김없이 헤어턴이 아닌 다른 이들을 생각한다.

록우드는 차치하고 넬리, 이자벨라, 히스클리프 등에 의해 그려지는 헤어턴의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 명의 화자가 바라보는 헤어턴은 인간이기 이전에 혹은 인간인 만큼이나 유령에 가깝게 그려진다.[7]

이처럼 유령화된다는 점에서 헤어턴은 "[2세대] 캐서린의 용모와 히스클리프의 천성을 겸비하며"(combines Cathy's looks with a part of Heathcliff's nature) 사실상 "그들을 연결해주는, 그들이 실제로 갖지는 않았던 아들"(the missing link between them, the son they never had; Seheltens140)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헤어턴은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죽음을 경험하며, (넬리를 만난 장면에서처럼) 설령 워더링 하이츠 바깥으로 나오더라도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 헤어턴은 2세대가 밟았던 유령의 삶의 패턴을 따르면서 유령성과 결부된다. 그리고 워더링 하이츠를 중심으로 린턴 히스클리프와 3세대 캐서린의 로맨스와 결혼 플롯이 진행되는 동안 헤어턴에 대한 서술은 많은 부분 그가 워더링 하이츠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에 할애된다. 헤어턴은 히스클리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서술은 헤어턴이 워더링 하이츠를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킨다.

이때 헤어턴은 곧잘 하인인 조셉과 함께 접속사 "and"로 연결되어 마치 한 짝처럼 언급된다. 조셉이 언쇼 가문의 충성스러운 옹호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왜 그토록 자주 헤어턴이 있는 곳에 조셉이 있고, 조셉이 있는 곳에 헤어턴이 있다고 서술되는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조셉과 헤어턴" 혹은 "헤어턴과 조셉"이라는 주어의 반복은 다름 아닌 유령화된 헤어턴의 삶을 보여준다. 그는 2세대 유령들 및 유사 유령 체험을 한 록우드와 마찬가지로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지 못하고

7) 타이틀러(Graeme Tytler)는 헤어턴이 유독 "여러 명의 1인칭 화자의 눈을 통해"(through the eyes of several first-person narrators) 그려지기 때문에 그의 성격에 대한 독자들 나름의 판단을 요하긴 하지만, "헤어턴이 마음을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점이 부인되기란 어렵다"(That Hareton emerges as a more or less sympathetic *human* being can be hardly be denied; 124 강조 필자)고 평가한다.

되풀이하여 그곳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돌아올 수밖에 없다. 히스클리프에게 재산을 모두 저당 잡힌 힌들리가 죽자 헤어턴은 "거지나 다름없는"(little else than a beggar; 2.3.162) 신세로 "그 자신의 집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는 하인으로 살아간다"(lives in his own house as a servant deprived of the advantage of wages; 2.17.163).

헤어턴에게 결부된 유령성은 히스클리프에게 예속된 그의 처지와 현저하게 격하된 지위를 확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이틀러가 "웃음, 눈물, 홍조 및 건강한 식습관과 수면 습관"(laughter, tears, and blushes as well as to his healthy eating and sleeping habits)을 통해 드러난다고 지적한 헤어턴의 "정상성"(normality; 128)은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비롯되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the disadvantages of his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125)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바로 그러한 악조건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헤어턴은 마치 조셉이 그러하듯 할 일을 하고 생활을 이어갈 뿐이지 테일러(Charles Taylor)가 근대인의 표지 중 하나로 든 "인간 삶에서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감각"(This sense of the importance of the everyday in human life; 14)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3세대 캐서린의 말마따나 헤어턴은 워더링 하이츠에서 개나 말이 그러하듯 "일하고, 식사하고, 잔다"(does his work, eats his food, and sleeps; 2.18.270).

헤어턴의 언어 발달 지연 역시 히스클리프의 계획적 학대의 결과다. 헤어턴에게 "이제 막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had just begun to teach him his letters; 1.9.77) 시점에 다섯 살배기 헤어턴을 남겨두고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이사를 가게 된 넬리의 우려대로 헤어턴은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다. 한창 말을 배울 시기에 헤어턴이 조셉, 힌들리, 히스클리프 사이에서 자랐고 헤어턴이

“히스클리프로부터”(Heathcliff; 1.11.95) 욕지거리를 배웠다고 넬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을 보면 헤어턴의 어눌함과 거친 행동은 헤어턴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워더링 하이츠』에서 동물성은 헤어턴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러 인물들이 동물에 빗대어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헤어턴은 포악하면서도 충실하고 타인에게 길들여진 듯 하면서도 자기 나름의 자율성을 가진다. 『워더링 하이츠』의 개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을 고리 삼아 헤어턴은 히스클리프와 연결된다. 히스클리프가 2세대 캐서린이 죽은 이후에도 그녀의 무덤에 찾아가고 그녀를 따라 죽기까지 하듯, 히스클리프에게 “누구보다 학대 받은 헤어턴”(Hareton, the most wronged)은 히스클리프가 죽었을 때 “진정으로 고통스러워 한 유일한 이였다. 밤새도록 시체 옆에 앉아 애통하게 울었다”(was the only one that really suffered much. He sat by the corpse all night, weeping in bitter earnest; 2.20.290). 헤어턴과 히스클리프는 언쇼 가문의 일원이지만 진정 누구인지 작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들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다. 이러한 공통점이 그들 간의 연결을 다른 방면에서 조명한다. 이러한 연결들이 헤어턴을 유령의 자장으로 포섭하는 데 서사 차원에서 일조한다.

지금까지 워더링 하이츠를 중심에 둔 헤어턴의 유령적 삶의 패턴은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그리고 록우드가 워더링 하이츠를 경험하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3세대 캐서린도 워더링 하이츠를 재차 방문하며,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오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돌아간다. 헤어턴의 유령적 삶의 패턴이 예정되는 데 있어서 그가 힌들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면, 3세대 캐서린의 워더링 하이츠 경험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헤어턴은 힌들리의 적자이자 그의 대변인으로서 볼모로 잡혀

히스클리프에게 완전한 복수를 당한다. 3세대 캐서린은 아버지로부터 자립하려는 시도들이 도리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유령의 삶을 경험한다. 그리고 마침내 헤어턴에게 히스클리프가 실제로는 아닐지언정 거의 친아버지처럼 여겨지듯 3세대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의 아들과 강제로 결혼하면서 그와 친족 관계가 된다.

에드거의 외동딸인 3세대 캐서린은 열세 살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 경내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보호 속에 갇혀있다. 히스클리프가 아내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하는 에드거는 워더링 하이츠 역시 (특히 히스클리프가 그곳을 점유한 이후 더욱)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멀리한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딸이 그곳을 방문하기는커녕 그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기른다. 하지만 집안의 내력이나 반목의 영문을 들은 적 없는 캐서린으로서는 자라나는 호기심과 심해지는 갑갑함을 극복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캐서린이 워더링 하이츠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일화는 금기를 깨는 사건으로, 캐서린이 넬리나 아버지에게 무조건 순종하기보다 스스로의 욕망과 의지를 표출하기 시작함을 보여준다. 이를 계기로 캐서린은 점점 더 자주 바깥출입을 하며, 포시던트(Amy R. Possidente)가 정확히 지적하듯, "어린 캐시가 성년으로 접어드는 과정을 에밀리 브론테가 그리는"(that Brontë stages much of young Cathy's coming of age) 배경인 "야외 자연 공간"(outdoors in nature; 265)을 서사 속으로 끌고 들어온다. 점점 더 캐서린에게 회유되어 그녀를 따라 나가는 넬리는 "캐서린의 얼굴은 딱 풍경 같았다"(Catherine's face was just like the landscape; 2.13.229)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캐서린의 외모와 자연 풍경을 겹쳐 그려 보이곤 한다.

"아버지와 넬리가 다 나를 떠나고 내가 혼자 남으면 나는 어쩌지?"(what shall I do when papa and you leave me, and I am by

myself?; 2.8.199) 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며 점점 자라나는 캐서린에게 아버지로부터의 자립은 그것이 제대로 시도되기 전부터 이미 아주 위험한 것으로 그려진다. 집 밖으로 나와 야외 공간에 발을 들인 이상 이미 안전이 위협된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캐서린은 넬리와 산책을 하는 동안 잃어버린 모자를 찾으려다가 가파른 곳에 빠져 올라오기 어려워하는가 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춤을 추다가 불시에 히스클리프를 마주친다. 이때 캐서린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워워, 린턴 양!"(Ho, Miss Linton!; 2.22.201) 하고 부르는 말 탄 히스클리프의 목소리가 먼저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감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는 다름 아닌 '혼자 남게 될 캐서린'을 걱정하는 에드거와 캐서린 자신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린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강제 결혼을 진행한다. 히스클리프에 의해 워더링 하이츠에서 감금된 기간에 걸쳐 경험하는 아버지의 죽음은 캐서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캐서린은 위독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히스클리프에게 꿋꿋하게 맞서 저항하다가 "이제는 두려워요. . . .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아버지가 서글퍼지실 테니까요"(I *am* afraid now. . . . because if I stay, papa will be miserable; 2.13.236)라며 한풀 꺾이는가 하면, 넬리에게 "나는 나 자신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해"(I love him better than myself; 2.8.200)라고 털어놓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죽음은 아직 그녀가 완전히 자립하기 이전 자기 자신이나 다름없는 존재 일부의 죽음이다.

아버지의 임박한 죽음 소식은 캐서린이 기지를 발휘하여 워더링 하이츠를 빠져나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 [린턴 히스클리프]는 머리를 써서 문을 딴 다음 닫지 않고 자물쇠를 채우는 꾀를 냈대요. 그리고 자러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싹싹 빌어서 그날 밤 한 번만 헤어턴과 자게 해달라고 했고 허락을 받았다지요.
>
> 캐서린은 동이 트기 전에 살금살금 기어나갔대요. 문을 열었다가는

개들이 짖을 테니까 빈 방들을 둘러보면서 창문이 열리나 살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운 좋게도 어머니의 방에 안착해서, 창살 밖으로 쉽사리 빠져나왔대요. 그 다음은 전나무의 도움을 받아서 착지했고요. 공범[린턴]은 소심하나마 꾀를 내봤지만 캐서린의 탈출을 도운 대가를 치렀고요.

He had the cunning to unlock, and re-lock the door, without shutting it; and when he should have gone to bed, he begged to sleep with Hareton, and his petition was granted, for once.

Catherine stole out before break of day. She dare not try the doors, lest the dogs should raise an alarm; she visited the empty chambers, and examined their windows; and, luckily, lighting on her mother's, she got easily out of this lattice, and onto the ground, by means of fir tree, close by. Her accomplice suffered for his share in the escape, notwithstanding his timid contrivances. (2.14.246)

죽어가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는 차에 조력자인 넬리도 없는 상황에서 히스클리프의 감시를 피할 길이 없었던 캐서린은 린턴의 꾀를 활용하여 워더링 하이츠를 성공적으로 탈출한다. 자세히 보면 린턴은 방에 감금되어 있던 그녀가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뿐, 이후 탈출을 이뤄내는 이는 캐서린이다. 이때 캐서린이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방으로 이끌리듯 그곳을 찾아가는 대목이 강조된다. 캐서린은 록우드가 소녀 유령을 가로막았던 바로 그 방의 같은 창가로 다가가서, 록우드가 소녀 유령과 혼동했던 바로 그 전나무 가지의 도움을 받아 워더링 하이츠를 빠져나온다. 캐서린 린턴 유령이 구슬픈 목소리로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애원했다면 여기서 3세대 캐서린은 용감하고 기민하게 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루는 듯이 보인다.

이 장면은 두 가지 가능성을 환기한다. 즉 3세대 캐서린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땅에 발을 딛는 것 같다가도, 그와 동시에

전나무를 매개로 하여 소녀 유령과 절묘하게 겹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캐서린이 어머니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 같은 예감 역시 전달한다. 록우드가 쌓아올린 "피라미드 형태의 책 더미"(the books up in a pyramid; 1.3.21)에 소녀 유령이 가로막혔었다면, 3세대 캐서린은 그동안 자신이 많은 책을 빌려주고 가져다주고 읽어주었던 린턴의 도움으로 창턱을 "쉽게"(easily) 넘는다는 데서 볼 수 있듯 어머니와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3세대] 캐서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반복하게 되면서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새로운 무언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반복"(The second Catherine is a non-identical repetition of her mother, compelled by circumstance to repeat some of her mother's story yet also able to transform this story into something new; 200)이라는 마스덴(Simon Marsden)의 말은 정확해 보인다. 그러나 '변화'로 나아가는 길은 마스덴이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지난하다. 이 장면은 마치 헤어턴이 아버지의 수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난간 아래로 내던졌듯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죽음에 가까이 있는 장면이면서, 헤어턴의 목숨을 건져준 히스클리프가 다시금 헤어턴을 유령의 삶으로 옭아매었듯 캐서린을 구해준 전나무가 다른 한편에서 유령으로 그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환기한다.

워더링 하이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령적 삶의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장면은 캐서린이 유령의 삶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대목이다. 워더링 하이츠를 방문하고, 재차 방문하며,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오지만 떠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공식에서 벗어나는 예외이기보다는 그 경험을 이루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3세대 캐서린은 일시적으로 워더링 하이츠 탈출에 성공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다음 장례까지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너를 집에 데려가려고 왔다"(I'm come to fetch you home)며,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되어라"(be a dutiful daughter; 2.15.247) 라고 협박하는 히스클리프와 재회하고, 워더링 하이츠로 강제 소환된다.

3세대 캐서린은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결박된다. 린턴이 죽은 직후 장면은 워더링 하이츠에 묶인 캐서린의 처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워더링 하이츠로 다시 붙잡혀간 캐서린은 린턴을 지키는 역할을 부여 받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 린턴이 죽고 나서 "기분이 어떠냐"(how do you feel)고 재차 다그쳐 묻는 히스클리프에게 캐서린은 마지못해 "당신이 나를, 그것도 혼자서, 그토록 오랫동안 죽음과 씨름하게 해서, 이제는 죽음만 느껴지고 죽음만 보여요! 내 자신이 죽음 같다고요!"(You have left me so long to struggle against death, alone, that I feel and see only death! I feel like death!; 2.16.253) 라고 대답한다. 린턴의 죽음에 대한 캐서린의 반응은 "관습적이지 않다"(unconventional; Myburgh 9). 캐서린은 린턴의 죽음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투적인 감정 반응보다도 추상화된 죽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여 말한다.

워더링 하이츠에서 헤어턴이 살아있는 인간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로 히스클리프의 "모범적인 간수"(model of jailor; 2.13.239)로 살아간다면 3세대 캐서린은 이제 막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던 자아가 완전히 짓밟히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형상화되는 실질적 사형에 처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워더링 하이츠에 결박된다. 넬리가 지켜보던 캐서린의 "아리땁고, 젊고, 건강하고, 활달한 아가씨"(that beautiful, young lady, that healthy, hearty girl; 2.13.235)로 커가던 모습은 희미해지고 질라가 말하듯 그녀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기보다

“죽음처럼 보이기까지 했다!”(And she looked like it, too!; 2.16.253)고 여겨질 정도이다. 이 대사는 질라가 캐서린이 “내 자신이 마치 죽음이 된 것 같다”고 한 말을 전하면서 동시에 받아서 말하는 부분이다. 죽음과 혼동되는 캐서린의 모습은 유령에 한층 더 가깝다. 격하된 캐서린의 처지는 추후 히스클리프의 명령에 따라 자기 자신을 “쓸모 있는”(useful; 2.17.258) 일꾼으로 만들고 “그의 지시사항을 아주 잘 따르는”(She obeyed his directions very punctually; 2.17.262)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이처럼 캐서린과 헤어턴은 히스클리프의 복수 플롯이 진행되는 동안 기나긴 시간 동안 워더링 하이츠를 유령의 집으로 경험한다. 록우드가 워더링 하이츠를 통과하면서 유사 유령이 되는 체험을 했듯이, 그리고 히스클리프와 2세대 캐서린이 워더링 하이츠에서 유령이 되었듯이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유령들의 패턴을 따라 워더링 하이츠를 경험한다. 그랬던 그들이 소설 말미에서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으로부터 확연히 멀어진다. 록우드가 놀라워하면서 목도하고 “개선”(an improvement; 2.18.265)이라 칭하는 워더링 하이츠의 모습은 유령성으로부터 멀어진 3세대의 영향으로 생겨난 변화이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이 어떤 의미에서 유령성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를 짚어본 다음,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둘의 로맨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우선 1장에서 살펴본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을 구축하는 네 가지 양상의 반복 중 세 번째와 네 번째—유령들이 만들어지고 모여드는 곳으로서 워더링 하이츠와 록우드의 워더링 하이츠 체류를 통한 유사 유령 체험기—는 워더링 하이츠라는 집 자체와 연관된다. 이때 히스클리프와 2세대 캐서린 그리고 록우드는 공통적으로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유령성과 결부된다. 그리고 이번 장의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듯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이 상당 기간 앞선 유령들의 패턴에 따라 이 집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모두 그들이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 말미에서 넬리는 워더링 하이츠가 "폐쇄될"(will be shut up; 2.20.291) 것이라고 전한다. 즉 워더링 하이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도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갈 수 없다.

물론 조셉이 워더링 하이츠의 부엌에 남는다. 하지만 조셉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워더링 하이츠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고 열려 있을 혹은 다시 열릴 가능성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아직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지 않은 캐서린과 헤어턴은 정원에 심겨있던 조셉의 나무들을 뽑는다. 이 일화에서 조셉은 설령 의도적이지 않았을지언정 자신을 등지고 캐서린의 편에 선 헤어턴에게 상당한 심적 타격을 입는다. 헤어턴은 더 이상 조셉이 주입한 대로 자신의 가문과 이름의 권위를 기계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마스덴이 정확하게 정리하듯 조셉은 "상징적으로 뿌리 뽑힌 채로 버려진 집에 홀로 남겨지고"(Symbolically uprooted and then left alone in an abandoned house; 203), 이미 3세대와의 사이에서—특히 헤어턴과의 관계에서—확연히 그 위상이 축소된다. 따라서 조셉을 미래에 회귀할지도 모르는 3세대를 향해 잠재적으로 열려있는 문의 문지기로 보기 어렵다.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은 임박한 이사 이후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으로부터 멀어질 뿐더러,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을 구축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양상으로부터도 멀어진다. 즉 그들은 넬리가 들려주는 히스클리프와 2세대 캐서린의 삶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소녀 유령의—'집이 없고, 외형에 대한 묘사가 모호하게 처리되며,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을 가하는 자에게 저항하지 않고 당장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집중하며,

유령이라고 불린다'는ㅡ네 가지 속성을 벗어버린 인물들로 다시 등장한다. 소녀 유령의 속성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의 모습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떠났다가 우연한 기회에 돌아와 워더링 하이츠를 방문하고 그곳의 3세대를 목격하는 록우드의 시선 및 이어지는 넬리의 이야기에서 두드러진다.

록우드가 당도한 워더링 하이츠는 "문과 창이 열려 있고"(Both doors and lattices were open; 2.18.266), 난롯불이 따뜻하게 타오르며, 널찍하다. 따라서 록우드는 그곳에 굳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바깥에 서서 안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장면은 어린 시절 캐서린과 함께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엿보던 히스클리프의 모습과 겹친다. 그러면서도 히스클리프와 록우드를 연결하기보다는 그 시절 히스클리프의 눈에 비친 철없는 이자벨라와 에드거 린턴 그리고 지금 록우드의 시야에 들어온 천진한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을 겹쳐 보이게 한다.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자기들의 집이 될 예정인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이사하기 전이지만 이미 안전할 뿐 아니라 안락하기도 한 집을 누리고 있다.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어디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집을 갖지 못하였다면 이 장면에서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어디에 있든 그곳을 집으로 만들 수 있을 듯 보일 정도이다.

록우드는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이 자리잡은 집을 목도할뿐더러 이들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이 보고 있는 장면을 확인한다. 이로써 3세대는 외형 묘사가 모호하게 처리된 소녀 유령의 속성으로부터도 멀어진다. 촌스럽고 그악스럽다는 등 뭉툭하게 묘사되곤 했던 헤어턴은 이 장면에서 "잘 갖춰 입고"(respectably dressed)있고, "잘 생긴 이목구비"(handsome features; 2.18.266)가 도드라진다. 한편 넬리가 심심치 않게 전해주던 발육 과정에서 위태로움과 적적함이 강조되었던 캐서린은 "하얗고 자그마한 손"(a small white hand)을

헤어턴의 어깨에 올려놓고는 이따금 그의 "뺨을 찰싹 때리는"(a smart slap on the cheek; 2.18.266) 동작을 하며 한결 정착한 모습이다. 캐서린의 "반짝이는 곱슬머리"(light shining ringlets)와 헤어턴의 "갈색 빛깔 머리카락"(brown locks)이 섞이는 모습을 보고 록우드는 "입술을 깨물며"(bit my lip; 2.18.266) 캐서린에게 다가가지 못하여 자신이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한다.

어떻게 하여 서로를 물어뜯듯 무시하던 이들 사이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는지 록우드에게 설명하는 넬리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캐서린과 헤어턴은 소녀 유령이 록우드에게 하지 못한 일을 한다. 즉 그들은 자신들을 비참한 처지로 만든 히스클리프에게 맞선다. 조셉의 나무를 마음대로 뽑고 그 자리에 대신 꽃을 심은 일이 화근이 되어 히스클리프가 분개하는 대목에서 캐서린은 자신의 "땅 전부"(all my land)와 "모든 돈"([a]nd my money)에 더하여 "헤어턴의 땅과 돈"([a]nd Hareton's land, and his money)을 전부 가져놓고 "땅 조금 가꾸라고 하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되죠"(shouldn't grudge a few yards of earth for me to ornament; 2.19.276)라고 응수한다. 캐서린이 당돌하다며 제압하기 위해 히스클리프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댔는데"(had his hand in her hair), 헤어턴도 히스클리프를 가로막고 "머리카락을 놓게 하며 이번만은 그녀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다"(attempted to release the locks, entreating him not to hurt her that once; 2.19.277)는 데서 알 수 있듯 수수방관하지 않고 캐서린에게 힘을 보태어 히스클리프에게 맞서기 시작한다.

캐서린과 헤어턴이 힘을 합하자 히스클리프는 헤어턴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5분 전만 해도, 헤어턴은 한 인간이 아니라 내 젊은 시절의 화신으로 보였다"(Five minutes ago, Hareton seemed a personification of my youth, not a human being; 2.19.279)던 히스클리프가 복수의

동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 시점이다. 즉 헤어턴은 최소한 히스클리프에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분명하지 않은 처지였다는 점에서 록우드의 꿈에 나타난 소녀 유령의 속성을 공유하지만 록우드에 의해 유령이라고 못 박힌 소녀 유령과는 정 반대로 유령으로 불리지 않게 된다.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소녀 유령의 속성을 탈피한다. 이들은 각각 따로 따로 그 속성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특히 소녀 유령의 네 가지 속성 중 고통을 가하는 이에게 맞서지 않고, 유령이라고 불린다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속성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헤어턴과 캐서린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8] 히스클리프에게 직접 맞서 발언하는 이는 캐서린인데, "당신이 나를 치면, 헤어턴이 당신을 칠거예요!"(If you strike me, Hareton will strike you!; 2.19.276)라는 대사가 보여주듯 헤어턴의 신체적 물리적 힘이 없이 캐서린 스스로 히스클리프에게 대항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또 헤어턴이 유령이라고 인식되기를 그치고 '헤어턴'으로 식별되는 과정에서 캐서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캐서린은 다만 헤어턴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히스클리프가 그를 다시 보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실제로 헤어턴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에 긴밀히 연루되어 있다. 다시 말 해 이들이 소녀 유령의 속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에는 둘의 로맨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성적 욕망은 캐서린과 헤어턴의 로맨스와 결혼 플롯에서 중추적이다. 가정 내에 국한된 캐서린의 유년 시절은 헤어턴의 유년기에 비해 순탄하게 요약되어 전해진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결정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캐서린은 넬리에게 "나도 어른이 되면 갈 수 있다는 거네. 아빠는 가보셨어?"(Then I can go, too, when I

8) 집이 없고 외형 묘사가 불분명하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속성을 거스르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을 탈피한 결과로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am a woman. Has papa been, Ellen?)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물으면서 "깎아지른 페니스톤 바위"(The abrupt descent of Penistone Craggs; 2.4.165)에 유독 호기심을 보인다. 캐서린은 줄곧 "이미 다 아는"(But I know)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 저택 경내보다 "아직 모르는"(I don't know; 2.4.165) 곳이라는 이유로 페니스톤 바위에 가보고 싶어 한다. 그런 캐서린에게 페니스톤 바위에 있는 "신비로운 요정굴을 열어 보여주고, 다른 수많은 진기한 곳도 보여준"(opened the mysteries of the Fairy caves, and twenty other queer places; 2.4.172) 이가 바로 사촌 지간임이 밝혀지기 이전의 헤어턴이다. 이와 같이 돋아나는 캐서린의 호기심과 욕망 그리고 비밀에 싸여있는 둘의 첫 만남에는 성적인 분위기가 감돌며, "캐시가 집 밖에 나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헤어턴 언쇼"(The first person Cathy meets outside her home is Hareton Earnshaw; Tytler 2017, 28)일뿐더러 이때 캐서린과 헤어턴이 서로 혈연관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에서 둘은 서로 남으로 만난다는 점이 강조된다.

첫 만남은 우여곡절을 지나 캐서린과 헤어턴의 관계가 다시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첫 번째 만남 없이 워더링 하이츠에 감금된 기간 동안의 인연만으로 헤어턴과 캐서린이 연인이 된다는 상상을 하는 것은 어렵다. 린턴 히스클리프를 만나기 위해 워더링 하이츠를 찾아오는 캐서린에게 헤어턴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캐서린은 이미 그가 자신의 사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 심적 거리를 느끼는 상태이다. 나중에 가서야 총기 사고로 인해 바깥출입을 못 하게 된 "헤어턴이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It suited Catherine to have him there; 2.18.270)며 헤어턴이 자신의 사촌임을 받아들이는 캐서린의 모습은 다분히 갑작스럽다. 그러나 첫 번째 만남의 일화와 장면들이 보여주는 바처럼 애초에 두 인물이 서로 성적으로 끌렸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대목들을 읽는다면 이들의 로맨스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페니스톤 바위 탐험 일화는 우연하고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헤어턴과 캐서린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이해하는 초석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캐서린과 헤어턴의 결합을 "성적 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Its sexual component is not necessarily absent, but it is considered less important; 156)고 여겨지는 사촌 간 결합(cousin marriage)으로 보는 섀퍼(Talia Schaffer)의 관점은 캐서린과 헤어턴의 로맨스의 핵심을 간과한다. 오히려 고프(Barbara Munson Goff)가 지적하듯 "그 끌림이 강렬하게 육체적이긴 해도 성적이지는 않은"(The attraction between them is asexual, though intensely physical; 501)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로맨스에 비하여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의 만남은 처음부터 성적인 성격을 띤다.

헤어턴이 사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더러 하인이 아니냐고 하여 캐서린이 일부러 헤어턴에게 모욕감을 안기기 전까지만 해도 헤어턴은 "캐서린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안내자"(her guide had been a favourite; 2.4.172)로 그려진다. 이는 넬리가 잃어버린 캐서린을 찾으러 워더링 하이츠로 들어간 직후 순간을 묘사한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 내가 들어갔더니 내 길 잃은 양이 난롯가에 앉아있지 뭐예요, 자기 엄마가 어릴 때 썼던 자그마한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거리면서요. 모자는 벽에 걸려 있었고, 아주 자기 집이나 다름없어 보였어요. 웃고, 헤어턴에게 조잘조잘 대면서, 더없이 기분 좋은 상태로요. 헤어턴은 그 즈음 거대하고 힘이 센 열여덟 아이였는데 꽤나 놀라고 궁금한 눈치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린 것이 쉬지 않고 말해내는 것들이며 질문이며를 모르긴 해도 거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
> I entered, and beheld my stray lamb, seated on the hearth, rocking herself in a little chair that had been her mother's, when a child.

> Her hat was hung against the wall, and she seemed perfectly at home, laughing and chattering, in the best spirits imaginable, to Hareton, now a great, strong lad of eighteen, who stared at her with considerable curiosity and astonishment; comprehending precious little of the fluent succession of remarks and questions which her tongue never ceased pouring forth. (2.4.167-8)

이 장면에 감도는 헤어턴과 캐서린의 호기심 어리고 즐거운 분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진다. '사촌', '하인', '집 주인'과 같은 말들이 개입하면서 캐서린과 헤어턴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캐서린은 외모가 볼품없어 신분이 낮아 보이는 헤어턴을 자신의 사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헤어턴은 무시당한 기분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서린과 헤어턴이 그러한 관계 용어들의 개입 이전에 서로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났으며 성적인 호기심과 끌림에 따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첫 번째 만남 이후로 여러 사건이 전개되면서 두 인물 사이에 반목이 깊어지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헤어턴이 히스클리프의 간수 노릇을 하며 캐서린을 감시하는 기간도 있지만 둘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갇혀)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가까워진다.

사촌이라는 관계는 캐서린과 헤어턴보다 캐서린과 린턴 히스클리프의 친밀성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캐서린은 헤어턴이 총기 사고로 워더링 하이츠에 발 묶여 상처를 회복하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헤어턴이 자신의 사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린턴 히스클리프는 사촌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캐서린의 관심과 기대를 산다. 헤어턴이 신분과 정체가 모호한 채로 캐서린에게 친족 관계 용어로 폭로된 사이인 반면 린턴 히스클리프는 등장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넬리에 의해 사촌으로 분명하게 인식되고 캐서린에게 곧바로 수용된다. 캐서린은 그의 등장을 기대하고,

그를 환대할 준비를 마친 채 사촌 누이로서 그를 만난다.

그리고 캐서린은 만나자마자 사촌으로 거리낌 없이 인정하는 린턴 히스클리프와의 관계에서 극도로 폭력적인 사촌 간 결혼을 경험한다. 에밀리 브론테는 린턴 히스클리프를 병약하고 성가신 존재로 그린다. 신체가 건강함은 물론 건장한 육체의 소유자로 캐서린을 안내하던 헤어턴과 대척점에 있는 그의 모습은 아버지인 히스클리프의 조롱을 살 정도로 묘사된다. 그래도 캐서린은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돌보는데, 그와의 결혼 과정에서 캐서린이 받는 극심한 고통과 학대는 사촌 간 결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캐서린은 린턴 히스클리프와 사촌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난을 겪는다.

이처럼 헤어턴과 캐서린의 로맨스는 서로 사촌이어서라기보다는 책과 글자를 사이에 놓고 진행된다. 캐서린은 책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인물에서 책을 선물하는 인물이 되고, 헤어턴은 문맹에서 독자가 된다. 자신의 책과 맞바꾼 말을 타고 워더링 하이츠에 가서 캐서린이 제일 먼저 마주하는 상대는 헤어턴이다. 이때 헤어턴은 "미니의 목을 쓰다듬고, 예쁜 동물이라고 말하면서"(patted Minny's neck, and said she was a bonny beast; 2.24.215) 캐서린에게 접근한다. 캐서린은 책을 활용하여 이동수단을 확보하고, 헤어턴은 캐서린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다가 무안당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읽을 수 있다"(I can read yon, nah; 2.24.215)고 은근히 자랑하는 장면들은 캐서린의 관심이 헤어턴보다 린턴에게 쏠려 있는 시기에 둘의 삐그덕거리는 관계 틈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채 튀어나오는, 캐서린에 대한 헤어턴의 서투른 관심을 잘 보여준다.

헤어턴은 자신을 무시한 캐서린이 책을 가지고 와 린턴에게 읽어주려는 찰나에 개입하여 장면을 망친다. 그는 다짜고짜 문을 열어젖히고 린턴을 끌어내며 두 사람더러 다른 방으로 가라고 윽박지른

다음 겁에 질린 캐서린이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책 한 권을 떨어뜨렸는데”(I was afraid, for a moment, and I let one volume fall; 2.24.217) 그 책을 발로 차버린다. 이렇게 어긋난 관계는 린턴이 죽고 헤어턴에게 다시 관심을 가지는 캐서린이 “헤어턴, 이제 내가 책을 한 권 주면, 받을 거야? 한번 해봐야지!”(Hareton, if I gave you a book, would you take it now? I’ll try!; 2;269) 하고 건네는 화해의 손길에도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이때 책은 “캐시가 거절, 유혹, 화해의 제스처로 주거나 주지 않는 문화자본”(Cathy’s cultural capital, which she alternately withholds or presents in gestures of rejection, flirtation, and reconciliation; Caldwell 93)이자, 화해 없이 화해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캐서린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헤어턴은 이를 알아차리고 있기라도 하는 듯 캐서린이 거들먹거리는 자세로 제공하는 책에는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반면 캐서린이 책을 건네기에 앞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고 먼저 화해를 한 다음 “헤어턴 언쇼 씨에게”(Mr. Hareton Earnshaw) 라고 적힌 책을 선물하자 헤어턴은 책을 받는다. 헤어턴과의 로맨스에서 캐서린은 자신의 문화자본을 활용하는 위치에서 내려와 자기 소유의 책을 헤어턴의 것으로 만들어줄 때 비로소 헤어턴의 마음을 연다. 헤어턴은 『워더링 하이츠』에서 유독 그 자신의 이름과의 관계가 여러 차례 조명되는데, 자신의 이름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다가 캐서린을 만나 글자를 스스로 깨우치고, 이름을 되찾으며, “헤어턴, 헤어턴, 헤어턴”(Hareton, Hareton, Hareton; 2.32.271) 하고 불리며 책 읽기를 연마하게 된다.

캐서린과 헤어턴은 유령의 집인 워더링 하이츠를 각각 또 따로 히스클리프, 2세대 캐서린, 록우드 (유사) 유령들이 밟았던 패턴에 따라 경험한다. 둘은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며, 죽음을 경험하고 그곳을 나오지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러나 책을

매개로 한 둘의 로맨스는 3세대가 히스클리프에게 저항하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음으로써 앞선 세대에서부터 반복되어온, 그리고 외지인에게도 전파될 정도로 강력한『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유령이 아닌 살아 있는 인간 존재로 부상하는데, 헤어턴은 캐서린을 보호하고 캐서린은 헤어턴에게 이름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히스클리프의 자장에서 벗어난다. "개인이 된다는 것과 젠더를 가진다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가 되는"(being an individual and having a gender amount to pretty much the same thing; Armstrong 2012, 544) 현상은 『워더링 하이츠』의 3세대에게도 해당된다.

3. 넬리의 가족사 쓰기와 떠나지 않는 유령

1장에서는 『워더링 하이츠』의 유령성을 중심으로 히스클리프와 2세대 캐서린이 유령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이 유령성을 탈피하고 개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3장은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그리고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의 서사를 함께 놓고 볼 때 어떤 의미가 생기는지 탐구한다. 3장은 유령과 개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텐데, 곧바로 유령과 개인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제시하기보다 록우드와 함께『워더링 하이츠』의 서술자인 넬리의 가족 내 지위 변동 경험과 서사적 권위 확보에 결부된 가족사 서술이라는 틀을 통해 위 질문에 접근한다.

『워더링 하이츠』의 주요한 서술자인 엘렌 딘(Ellen Dean) 또는 넬리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소설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기 드문 하인(servant) 계층이다. 넬리는 『워더링 하이츠』가 전개되는 동안 줄곧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먼저 넬리는 주인 집안 아이들과 뚜렷한 차등 대우를 받지 않는 식솔 즉 "워더링 하이츠 집안의 구성원"(a member of the household; Steedman 194)으로 생활하다가 점점 그 지위가 명시적인 '하인'으로 변동하는 경험을 한다. 그녀가 본래 하인이 아니었다기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인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분명하게 인식된다는 뜻이다. 넬리의 입장에서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의 역사는 자신의 지위 변동과 얽혀서 진행된다. 그런 가운데 넬리는 점차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의 모습 및 역할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을 고집하면서 언쇼 가문 및 린턴 가문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워더링 하이츠』의 마지막 결합 혹은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의 결합은 넬리의 바람이 현실화된 버전이다. 이처럼 넬리가 원하는 가족의 이상을 종착지로 하는 넬리의 가족사 서술 한편으로 넬리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잔류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령성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령성은 전적으로 넬리의 서술이 낳은 산물이기보다 외지인인 록우드의 의도적이지도 않고 여러 모로 엉뚱한 개입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그에 더하여 히스클리프와 넬리 사이에 오가는 긴 대화가 넬리의 이야기 초반 및 후반을 감싸고 있음으로 인해 넬리가 완성하는 가족사가 사실은 넬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넬리는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정돈되지 않은, 즉 자신의 이상에 걸맞지 않은 구성원들을 가족에서 축출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유령으로『워더링 하이츠』에 남아 있으며, 나아가 넬리가 가장 아껴 마지않는 개인화된 3세대와 겹쳐진다는 점에서 넬리의 이야기를 교란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넬리의 가족 경험 그리고 『워더링 하이츠』가 두 서술자 사이에 일종의 가족사로 유통된다는 점을 설명한 다음 넬리의 가족사 서술에서 개인에 겹쳐지면서 개인을 미묘하게 흔드는 유령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고 언쇼 씨가 작고하기 전 워더링 하이츠에서 넬리는 하인이긴 하지만 하인이라는 위치가 전면화되기 이전 상태이다. “이웃들 이야기 좀 해 달라”(tell me something of my neighbours)는 록우드에게 넬리는 일단 자기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입주하기 이전 “거의 언제나 워더링 하이츠에 있었다”(I was almost always at Wuthering Heights; 1.4.29)고 자기소개를 한다. 즉 본인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다. 언쇼 가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넬리는 헤어턴의 아버지인 힌들리를 기른 유모의 딸로, 힌들리나 2세대 캐서린과 곧잘 “어울려 노는 데 익숙했다고”(I got used to playing with the children; 1.4.29) 회상한다. 물론 이런 저런 심부름이나 일을 맡아 돕기도 하였지만 넬리는 그런 일화보다도 고 언쇼 씨가 자기 자신을 애틋하게 대했던 기억을 강조한다. 예컨대 결과적으로 히스클리프를

집안에 들이게 된 계기인 리버풀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고 언쇼 씨는 "나를 잊지 않았고"(He did not forget me) 직접 비교하지는 않지만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데서 알 수 있다시피 자기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했듯 넬리 자신에게도 "주머니 가득 사과와 배를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했다"(He promised to bring me a pocketful of apples and pears; 1.4.29)는 식이다.

집을 비웠다가 돌아온 고 언쇼 씨가 히스클리프를 데려와 가족들에게 소개했을 때도 넬리는 언쇼 집안 아이들이 하듯이 히스클리프를 대한다. 이때 언쇼 씨는 넬리더러 히스클리프를 "씻겨주고, 깨끗한 옷가지를 챙겨준 다음 아이들과 함께 자도록 해 달라"(wash it, and give it clean things, and let it sleep with the children; 1.4.30) 부탁하지만 넬리는 유모의 딸이자 허드렛일을 돕는 아이로서 자기 위치를 의식하기보다 언쇼 집안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합류한다. 넬리는 자신의 책임 방기에 대해 해설하면서 "힌들리와 캐서린은 그것과 같이 자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고 자기들 방에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나라고 더 분별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라서 그냥 층계참에 놔뒀다"(They entirely refused to have it in bed with them, or even in their room, and I had no more sense, so I put it on the landing of the stairs; 1.4.31)고 록우드에게 적당히 둘러댄다. 넬리는 언쇼 씨의 당부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보다도 자기 자신도 언쇼 집안 아이들 중 하나로서 그 아이들이 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위 일화를 두고 넬리를 나무라는 언쇼 씨의 처사도 넬리가 하인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넬리는 "비겁함과 몰인정"(cowardice and inhumanity)을 죄목으로 "집 밖에 내보내졌다"(was sent out of the house; 1.4.31)고 회상하는데,

만약 넬리가 이렇게 전하는 말이 언쇼 씨 자신이 선택한 단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이는 넬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동정, 연민, 아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넬리가 곧잘 덧붙이거나 삽입하는 식의 자기만의 해석 혹은 해설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워더링 하이츠 내에서 하인이면서 넓은 의미의 식구에 해당하는 자신의 경계적 위치를 인식하는 그녀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히스클리프가 "언쇼 가족들에게 소개"(introduction to the family)되는 사이 넬리도 "추방을 영원한 것이라 여기지 않아서"(I did not consider my banishment perpetual; 1.4.31) 돌아와 다시 가족들 틈으로 들어온다.

이후 넬리는 본래 언쇼 집안 식구들인 힌들리나 캐서린보다도 오히려 히스클리프에게 마음이 더 기우는 인물로 변모한다. 세 아이들이 동시에 홍역을 앓는 동안 "그들을 돌봐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던"(had to tend them, and take on me the cares of a woman at once; 1.4.31) 넬리는 "캐시와 그 오빠가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Cathy and her brother harassed me terribly) 동안 히스클리프만 유일하게 "양처럼 아무 불평 없이"(uncomplaining as a lamb; 1.4.32) 자신을 성가시게 하지 않았노라고 회상한다. 다른 아이들의 병시중을 드는 일이 하인으로서 넬리의 처지를 부각하는 것이라면 병시중을 별로 요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한 히스클리프는 그렇지 않다. 이 시기를 분기점으로 넬리는 히스클리프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자기 스스로 힌들리의 "마지막 남은 편"(last ally; 1.4.32)이기를 그만두었다고 되짚는다.

히스클리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넬리는 힌들리가 대학 생활을 하러 떠나는 차 "이제는 집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너무나도 바랐다"(I hoped heartily we should have peace now; 1.5.34)고 말하면서 언쇼 가족의 '평화'를 가장 해치는 인물로 힌들리를

몰아세우는 데 일조한다. 또한 넬리는 조셉과 캐서린도 평화를 저해하는 대열에 합류시킨다. “나이 들고 병들어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 가족 간의 불화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언쇼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I fancied the discontent of age and disease arose from his family disagreements, as he would have it that it did)라고 설명하는 넬리의 판단 근거의 이면에는 “주인께서 약해지실수록 조셉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the more feeble the master became, the more influence he gained) 것과 놀이라지만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서 자신에게 손과 말을 함부로 놀리기를 좋아했다는 캐서린의 “손찌검과 명령”(slapping and ordering; 1.5.35)을 견딜 수 없었다는 넬리의 심경이 자리한다. 즉 넬리는 하인으로서 자신의 지위가 분명해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며, 가족의 평화를 저해한다는 명목 하에 자신의 지위를 하인으로 명시하는 상황 및 인물들을 서사 차원에서라도 정리하고 싶어 하는 서술자이다.

유학을 떠났던 힌들리의 귀환은 워더링 하이츠의 하인들의 삶에서도 질서가 개편되는 사건이다. 넬리는 이 상황을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게끔 서술한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그녀가 상심했다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힌들리가 데리고 온 프랜시스의 바람에 따라 집안 공간 활용이 달라져야 했고, 그에 따라 “힌들리가 조셉과 나에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엌 뒤편에서 지내고, 하우스는 자기에게 내주라고 했다”(he told Joseph and me we must thenceforth quarter ourselves in the back-kitchen, and leave the house for him; 1.6.38)는 것이다.[9] 넬리가 “하인”(the servant; 1.5.34)이라고 칭하며 여러모로 자기 자신과 구별 짓고 싶어 하는 조셉과 한데 묶인바 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할

9) 여기서 “하우스”는 집의 내부 구조 일부를 지칭하는 건축 용어이기 때문에 집으로 번역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번역어를 쓰지 않기로 한다.

수 없게 되는 이 조치는 “힌들리가 돌아온 바로 그 날”(on the very day of his return; 1.6.38) 이루어지며, “하인들”은 속절없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우스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특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우스는 복도 없이 한 눈에 들어오는 큰 방 같은 거실로 이루어진 1층 공간으로 『워더링 하이츠』의 주요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무대이다. 독자들을 워더링 하이츠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여행자 서술자 록우드도 워더링 하이츠에 처음 들어간 날 “복도나 로비 같은 도입부 없이 공개된 가족 거실”(the family sitting-room, without any introductory lobby or passage; 1.1.2)인 하우스부터 마주한다. 록우드가 처음으로 3세대 캐서린을 만나는 곳, 히스클리프가 언쇼 가문으로 편입되던 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들어 그를 구경하는 곳,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이 시간을 보내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고 언쇼 씨가 명을 다 하는 곳이 이곳 하우스이다.

> 폭풍이 집을 휘감고 거세게 불어댔지요. 굴뚝이 웅웅 울렸어요. 아주 거칠고 격한 소리가 났는데, 춥지는 않았고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있었답니다—나는 난로에서 좀 떨어져서 뜨개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조셉은 탁자 근처에서 자기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대체로 하인들이 할 일을 끝내면 하우스에 머물렀으니까요.) 캐시 아가씨는 아파서 하는 수 없이 얌전했다고 치고, 자기 아버지 무릎에 기대고 있는 동안 히스클리프가 그런 캐시 무릎에 머리를 대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
> A high wind blustered round the house, and roared in the chimney; it sounded wild and stormy, yet it was not cold, and we were all together—I, a little removed from the hearth, busy at my knitting, and Joseph reading his Bible near the table (for the servants generally sat in the house then, after their work was done.) Miss Cathy had been sick, and that made her still; she leant against her father's knee, and Heathcliff was lying on the

floor with his head in her lap. (1.5.36)
언쇼 부인이 먼저 죽고 힌들리는 대학에 가 있는 사이, 그러니까 히스클리프를 데려온 언쇼 씨에게 가장 큰 불만을 표출했던 이들이 집에 없는 동안 조셉과 넬리를 포함한 워더링 하이츠의 식구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상태, 그리고 취하고 있는 모습이나 자세 등에 차이를 보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하우스에 모여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 반영된,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느슨한 범위의 식솔 개념이 적용되던 고 언쇼 씨의 워더링 하이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막을 내리게 된다. 추후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의 말을 반쯤 엿듣다가 좌절하여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는 날 그렇듯이 위 장면에서 워더링 하이츠는 거센 바람에 휩싸여있다. 한 시대의 종말 혹은 새로운 상황으로의 진입이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동안 언쇼 집안 가족들과 한 식구나 다름없이 살아온 넬리는 하인과 주인 집안 식구들의 분리 조치를 시행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프랜시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힌들리는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죠. 아마도 아내가 내세울 만한 재산이나 가문이 없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지 않았겠죠."(What she was, and where she was born, he never informed us; probably, she had neither money nor name to recommend her, or he would scarcely have kept the union from his father; 1.6.38)라는 우회적 핀잔을 통해서나마 힌들리의 조치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느꼈음을 노골적으로 표한다. 넬리는 하인들에게 내려진 분리 조치와 마찬가지로 프랜시스의 "한 마디 말"(a few words from her)로 인해 곧바로 "언쇼 집안 가족들 틈에서 하인들에게로"(from their company to the servants) "격하"(degradation 1.6.39)되는 히스클리프에 대한 공감 어린 서술로 불만 혹은 슬픔의 직접적인 표출을 대신한다.

워더링 하이츠의 크리스마스 파티 일화는 언쇼 가족 구성원에서

도태되는 히스클리프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넬리의 경험의 정점이다.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서 5주 기간을 보내고 돌아온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재회를 바라보며 둘의 사이가 전과 다를지 아니면 그대로일지를 두고 전전긍긍하는 언쇼 부부의 시선이 "불안하게"(anxiously; 1.7.45) 보였다는 넬리의 눈은 날카롭다. 긴 말이 덧붙지는 않지만 넬리의 관찰만을 통해서도 한동안 한 형제나 다름없이 커온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하인과 아씨로 구별하는 조치는 인위적이라는 판단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쇼 부부는 표면적으로는 린턴 댁 내외에 감사 표시를 할 겸 에드거와 이자벨라를 초청하여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 그러나 힌들리에게 이 파티는 다시 한 번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처지를 구별함으로써 둘 사이를 갈라놓을 기회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서 넬리는 히스클리프에게 무척 깊이 공감한다.

> 이런 상황에서 나는 혼자 남았어요. 양념이 데워지는 맛 좋은 냄새를 맡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부엌 도구들을 바라보았죠. . . . 물건 하나하나에 마땅한 칭찬을 속으로 하자 그때 고 언쇼 씨가 생각났어요. 내가 살림살이를 정돈해 놓으면 들어오셔서는 나더러 부지런한 아가씨라고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1실링을 손에 주셨거든요. 그 생각을 하자 고 언쇼 씨가 히스클리프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가 업신여김 당할까봐 심히 걱정하시던 것도 생각났죠. 그러자 자연히 지금 히스클리프가 겪는 안쓰러운 처지에 대해 곱씹게 되고, 노래는 그만 하고 울고 싶어지더라고요.
>
> Under these circumstances I remained solitary. I smelt the rich scent of the heating spices; and admired the shining kitchen utensils. . . . I gave due inward applause to every object, and then I remembered how old Earnshaw used to come in when all was tidied, and call me a cant lass, and slip a shilling into my hand as a Christmas box; and from that I went on to think of his fondness for Heathcliff, and his dread lest he should suffer neglect

after death had removed him; and that naturally led me to consider the poor lad's situation now, and from singing I changed my mind to crying.(1.7.47)

여기서 넬리의 심경은 할 일을 정갈하게 마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전 주인이 보이던 모습과 사뭇 다른 현재 집 주인의 처우에 대한 씁쓸하고 향수 어린 인식으로부터 히스클리프의 확연히 달라진 처지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진다.

넬리는 마음으로 히스클리프의 곁에 서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그를 도와 캐서린을 만나게 해 주고 힌들리의 금지에 맞서 "그의 몫의 디저트"(have his share of the dainties; 1.7.50)도 누리게 해주기로 마음먹는다. 넬리는 히스클리프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에드거는 히스클리프의 늠름함에 비하면 "인형"(quite a doll; 1.7.48)에 불과하다고 귀띔하는가 하면 주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추후 넬리가 힌들리나 에드거 편으로 다시 기운다는 점을 되짚어보면 이 일화에서 넬리가 보이는 입장은 더욱 돌출되어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일화는 에드거나 힌들리를 자신이 모셔 마땅한 주인으로 인정하기 이전 넬리의 심경을 보여준다. 넬리는 히스클리프와의 실랑이 중에 사과 소스를 뒤집어쓴 에드거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끼어들더니 잘 됐다"(it served him right for meddling; 1.7.50)며 괘씸함을 손의 무게에 싣는다.

파티 후반부에 넬리가 실제로 "[히스클리프]를 대신해 [이자벨라와 춤을 추도록] 지목되었다"(I was appointed to supply the deficiency; 1.7.51)는 데서 넬리가 히스클리프에게 심정적으로 몹시 가까이 다가간 경험이 다시 한 번 가시화되고 확인된다. 이처럼 힌들리 휘하 워더링 하이츠에서 히스클리프에게 동조하는 넬리는 히스클리프가 하인으로 격하되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며, 그와 동시에 히스클리프보다는 덜 뚜렷하나마 하인의 지위로 덩달아 격하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 말미에

록우드로부터 “당신은 보통 하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했군요”(I am sure you have thought a great deal more than the generality of servants think; 1.7.54)라는 모종의 평가를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록우드가 오독 전문으로 유명하기는 하나 여기서만큼은 넬리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듣는다. 즉 넬리는 (적어도 록우드라는 청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통 하인들과는 다른 누군가’로 정립하는 데 성공한다.

넬리가 록우드에게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면서 자기 자신을 하인으로 일컫기 시작하는 때가 그 직후부터이다. 넬리는 달라진 처지를 체념조로 수용한다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의미에서 하인이라는 정체성을 포용하기보다는 청자인 록우드가 이미 자기 자신을 보통 하인과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프랜시스 사후 술과 폭력 그리고 도박에 휩쓸려 살기 시작하는 힌들리의 워더링 하이츠에서 “하인들은 그의 폭군 같고 악한 모습을 오래 버티지 못했고 조셉과 저만 남았어요.”(The servants could not bear his tyrannical and evil conduct long: Joseph and I were the only two that would stay; 1.8.56)라는 넬리의 대사는 여전히 하인이라는 단어와 자기 자신을 되도록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다. 하지만 전과 달리 넬리는 조셉과 자기 자신을 짝지어 이야기하는가 하면 둘 모두를 하인이라는 범주 아래로 들여 쓴다.

그러면서도 넬리는 이따금 굴욕감을 느끼지만 하인 직분을 이어가기로 한 자신의 결정 근거를 밥벌이나 모종의 당위에 두기보다는 스스로의 인격적 깊이와 가족과의 두터운 역사를 저버릴 수 없다는 데에 돌린다. “헤어턴을 떠날 수 없었다”(I had not the heart to leave my charge)는 첫째 이유에 더하여 넬리는 “[록우드 씨]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힌들리의 수양 자매였고, 그의 행동을 낯선 사람들보다야 훨씬

쉽게 용서했으니까요"(you know, I had been his foster sister, and excused his behaviour more readily than a stranger would; 1.8.57)라고 말한다. 『워더링 하이츠』에 담긴 두 가문을 오가는 가족의 이야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혈연관계 위주로 점차 협소해진다. 그와 동시에 준 가족 구성원의 지위를 누리던 넬리와 같은 하인들의 위상도 변화한다. 넬리는 이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현재와는 달랐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기억하는 자기 자신을 환기하는 식으로 자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서술자이다.

바로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넬리는 『워더링 하이츠』의 서술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워더링 하이츠에서 하인들이 겪는 지위 변동이 넓은 의미의 가족에서 비가족적인 상태로 재편성된다는 의미였다면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서 하인은 거의 임금 노동자와 같은 말이 된다. 2세대 캐서린이 에드거 린턴과 결혼하여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 "제가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고, 저에게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자, 캐서린 아씨는 남편과 오빠에게 가서 통곡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저에게 **후한 임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녀의 오빠는 저더러 짐을 싸라고 명령했죠."(When I refused to go, and when she found her entreaties did not move me, she went lamenting to her husband and brother. *The former offered me munificent wages*; the latter ordered me to pack up; 1.9.77 강조 필자)라는 넬리의 서술을 보면 캐서린이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승부하기를 포기한 점, 에드거가 돈으로 자신을 회유하려 한 점, 그리고 힌들리가 강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이사를 종용한 점을 나란히 놓는다. 이로써 넬리가 제 아무리 폭군 같은 힌들리일지언정 "그의 변덕이 무서운 적은 없었다"(I was never afraid of his vagaries; 1.9.65)며 돌아보는 워더링 하이츠 체류 시절을 매듭지으면서 "제대로 된 사람은

전부 내쫓고 이제 더 빨리 망할 일만 남았다고 주인에게 말했다"(I told the master he got rid of all decent people only to run to ruin a little faster; 1.9.78)는 데서 알 수 있듯 재량껏 집안일에 개입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끝난다.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서 넬리는 더 복종적인 태도로 에드거를 주인으로 모신다. 이는 히스클리프에게 동조하던 크리스마스 파티 시절 넬리가 에드거에게 보였던 태도와 대비하여 본다면 아주 극명한 변화이다. 고 언쇼 씨 대나 힌들리 대에서와 달리 에드거가 죽은 다음 히스클리프는 변호사를 시켜 "[넬리만] 제외하고 모든 하인을 그만두게 했다"(gave all the servants but me, notice to quit; 2.14.245)는 데서 알 수 있듯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하인들은 이제 언제 바뀔지 모르는 주인의 변심에 따라 한꺼번에 해고되는 취약한 처지이다. 그 와중에 넬리는 다시 한 번 이중의 위치를 점한다. 넬리는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보다 협소화된 의미의 하인이면서 동시에 "아내가 죽고 나서 린턴 씨는 나를 가정부로 계속 데리고 있었다"(after she died, the master retained me for his housekeeper; 1.4.27)는 데서 알 수 있듯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이사한 이래 18년 동안 린턴 집안과 언쇼 집안의 사정을 훤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왔고, 유언장을 구실 삼아 에드거 린턴의 매장지 향방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이다.

넬리는 가족의 일부였다가 점차 분리되고 임금 노동자로 구획되는 하인의 지위 변동을 몸소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언쇼 집안의 일원이었던 시절부터 축적된 유구한 역사를 자원 삼아 위태로운 자신의 입지를 끝까지 지켜내며, 가족사를 이야깃거리로 제공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이야기꾼으로 부상한다. 『워더링 하이츠』 제2권을 시작하면서 록우드가 넬리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가리키며 "그녀에게 전해들은 그대로 계속 적겠다. 아주 조금은 줄여서 쓰겠지만. 그녀는, 대체로 아주 능숙한

이야기꾼이어서 내가 그녀보다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I'll continue it in her own words, only a little condensed. She is, on the whole, a very fair narrator and I don't think I could improve her style; 2.1.135)는 말은 넬리의 권위를 인정하는 진심에서 나온 고백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넓은 의미의 가족 구성원이자 하인으로서의 지위 변동을 두 축으로 삼아 서술자로서 넬리의 권위가 형성된다는 점을 짚어보았다. 이제 바로 그러한 권위를 탑재한 서술자 넬리가 하는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그 이야기에서 넬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며 또 이루지 못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록우드의 말은 넬리의 말로는 "역사"(history; 1.14.134) 그리고 추후 록우드의 말로는 다시금 "뒤이은 히스클리프의 역사"(the sequel of Heathcliff's history; 2.18.268)로 번역된다. 그렇다면 무엇의 역사인가? 이에 대하여서는 가족의 역사라는 말이 가장 알맞아 보인다. 넬리의 이야기의 초점이 히스클리프에게 많은 부분 맞추어지긴 하지만 히스클리프만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넬리의 서술 범위가 더 폭넓다. 그러나 넬리의 이야기의 한계는 린턴 가문과 언쇼 가문의 사람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을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넬리가 가족사를 서술한다는 점 그리고 넬리는 "사심 없는 관찰자"(a cool spectator; 2.1.138) 혹은 중립적인 서술자이기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그 스스로 가족 만들기에 참여하기까지 한다는 점을 짚어보자.

넬리가 들려주는 가족사는 죽음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죽음을 포함한다. 고 언쇼 부인을 시작으로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의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 둘 차례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노화, 병, 출산, 중독, 허약체질 등 사인을 제공하게 되는 배경은 다양하다. 이때 주목할 지점은 2세대 캐서린의 죽음이 다른 이들의 죽음과는 달리

한 가지 배경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캐서린의 최후는 다른 이들의 죽음에 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서술되며 히스클리프의 죽음을 포함하여 그 어느 죽음보다 복합적으로 그려진다. 어린 시절 가장 혈기왕성하였던 2세대 캐서린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이사한 이래 "이 부서진 감옥"(this shattered prison; 2.1.139)에 진저리가 난다며 사방으로부터 조이는 듯 한 갑갑함을 호소하고 차차 죽음에 이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활약하여 캐서린의 죽음에 기여하는 이들 중 한 명이 넬리이다.

캐서린은 에드거 린턴과 연애 시절 힌들리의 명령을 받드는 감시자를 자처하는 넬리더러 손님이 왔을 때 "하인들"(servants; 1.8.60)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리를 피하는 게 도리라고 일침을 가한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캐서린에 대한 넬리의 반감은 어린 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성격 차이 혹은 개인적인 불호,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을 대놓고 하인 취급하기 시작하는 데 대한 반항심이라는 느낌이 주요하지만, 히스클리프의 귀환과 맞물리는 시점부터 (이제는 워더링 하이츠가 아닌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 있는) 캐서린에 대한 넬리의 감시가 지나칠 정도로 심해져서 캐서린은 직설적으로 넬리가 "주제넘다"(presumptuous; 1.11.97)고 말할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넬리는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바 중 가장 중요한 의무인 양 캐서린에 대한 감시 태세로 일관한다.

넬리는 이 시기 "히스클리프로부터 워더링 하이츠와 그레인지를 조용히 해방시키고 우리를 그가 오기 이전의 상태로 놔둘 결과를 낳을 어떤 일"(something. . . .which might have the effect of freeing both Wuthering Heights and the Grange of Mr. Heathcliff, quietly, leaving us as we had been prior to his advent; 1.10.93)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노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넬리가 제아무리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곧바로 넬 리가 왜 그토록 적극적으로 캐서린을 감시하고 제압하는 데 앞장서는가에 대한 만족스럽고 명쾌한 설명인 것은 아니다. 넬리는 사라졌던 히스클리프가 되돌아와 워더링 하이츠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자기 마음대로 오가는 시기 동안 자기 자신은 "캐서린보다 에드거에게 심정적으로 가까움"(My heart invariably cleaved to the master's, in preference to Catherine's side)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느낀 까닭을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았다"(seemed to allow herself such wide latitude; 1.12.105)는 캐서린의 성격에 에둘러 돌릴 따름이다.

넬리가 바라 마지않았다는, 워더링 하이츠와 그레인지에 평화를 되돌려줄 '사건'이란 결국 캐서린의 죽음이다. 넬리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캐서린을 돕거나 보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은근슬쩍 방기한다. 예를 들면 캐서린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에드거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고 에드거에게 전갈을 띄우는 캐서린의 심중을 뻔히 읽으면서도 끝까지 전달하지 않는 식이다. 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넬리는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에드거와 히스클리프 그리고 캐서린 사이를 오가면서 불화를 증폭시키고 인물들의 감정 반응을 보다 더 격정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는 특히 캐서린에게 치명타가 된다. 더욱이 에드거와 히스클리프가 갈등하는 사이에서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워하는 캐서린을 그리는 일련의 장면들을 서술하는 넬리의 어조는 무척 냉소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기까지 하다. 넬리는 한동안 식사를 거른 캐서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자 "아주 열심히도 먹고 마셨다"(She ate and drank eagerly; 1.12.105)고 하는가 하면 캐서린이 "전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연기했다"(she acted a part of her disorder; 1.12.105)는 생각을 했노라고 전한다. 나중에 에드거에게 꾸중을 들으면서도 넬리는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캐서린을

“죄인”(sinners; 1.9.70) 무리에 집어넣는다.

넬리는 근본적으로 히스클리프를 추방하고 싶은 심리를 ‘지나치게 분방하다’는 이유로 캐서린에게 투영한다. 이처럼 자신의 위치에 허락되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넬리는 결과적으로 이자벨라라는 희생양까지 낳는다. 캐서린의 병을 알리러 의사인 케네스 씨(Mr. Kenneth)를 찾아가서 이자벨라와 히스클리프의 도주 소식을 접한 넬리는 “내가 몇 시간만 더 빨리 왔더라면 린턴 부인의 병이 이자벨라의 급한 발걸음을 제지했을 테지요.”(Had I been a few hours sooner, Mrs. Linton's illness might have arrested her rash step; 1.12.113) 라고 말하듯 이자벨라가 히스클리프와 덜컥 결혼하는 데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리는 “입을 다물고, 일이 수순에 따라 진행되도록”(hold my tongue, and suffer matters to take their course; 1.12.113) 수수방관하며, “내가 이자벨라의 도주를 처음으로 알리는 장본인이 되지 않아도 됐다”(I was spared of being the first proclaimant of her flight; 1.12.114)는 사실에 안도하는 무책임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이제 바로 앞서 넬리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넬리를 보고 “우리의 암소들을 상처 주려고 땅에 떨어진 돌이나 화살촉들을 모으고 있으면서 내가 가까이 있을 때면 모은 것이 양털 뭉치인 척 하는”(you are gathering elf-bolts to hurt our heifers; pretending, while I am near, that they are only locks of wool; 1.12.106) 얄궂은 늙은이라고 한 캐서린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넬리는 에드거와 캐서린 사이에서 배신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캐서린으로부터 “우리를 해치려고 돌이며 화살촉을 찾는 게 맞네!”(So you do seek elf-bolts to hurt us!; 1.12.111)라는 확증을 받으며, 캐서린을 학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와중에 이자벨라를 포함한 린턴 가문 여성들을 위험에

몰아넣는다.

이처럼 넬리는 히스클리프라는 "불길한 존재"(luckless presence; 2.1.142)를 퇴치하겠답시고 캐서린과 이자벨라를 죽음으로 내몬 내력을 지닌다. 암스트롱의 또 다른 저작에 따르면 새로운 지배계급에 알맞은 남성성 및 이를 통한 포용적 사회라는 환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설은 "젠더, 즉 성차의 환상"(gender—the illusion of sexual difference; *HNT* 103)을 활용한다. 『워더링 하이츠』에서 2세대 캐서린 유령처럼 집 밖에 유배되거나 3세대 캐서린처럼 집에 감금되고 이자벨라처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인물들은 여성인데, 이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적 남성성이 여자의 자리로 "재배치"(recast; *HNT* 103) 되면서 남성 인물들은 용서되고, 19세기까지만 해도 "자기표현"(self-expression; *HNT* 79)의 발로였던 적극적인 "여성성"(femaleness; *HNT* 80)은 남성을 길들이는 가정적 "여성스러움"(femininity; *HNT* 80)으로 재구조화된다. 이 시대의 개인은 단지 욕망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욕망을 "다스리고 [사회적인 것으로] 재조정"(contain and redirect; *HNT* 81)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데, 히스클리프는 결국 자기 억제에 실패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의 여성에 가까워진다. 그처럼 체제 유지에 맞지 않는 남성성을 여자로 번역하여 축출하는 식으로 빅토리아 시대 소설은 남성성 내부의 모순 문제를 은폐한다(*HNT* 103).

넬리는 히스클리프를 가까이 두려는 캐서린의 심리를 누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직접 전해 들었으면서도 캐서린의 동기를 방종이라 규정하여 질타될 죄로 몰아간다. 그 사이에 히스클리프를 잘못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이자벨라를 구할 수도 있었을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사실상 히스클리프를 데리고 워더링 하이츠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세계를 떠나줄 희생양으로 만든다. 한때 가족과 하인 사이에서 모호한 처지를 공유하였던 히스클리프가 돌아와 느끼는

당혹감과 어떻게 해서든 그의 존재가 무질서를 야기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과중한 책임감을 스스로 떠맡는 넬리는 히스클리프와 그에게 이끌리는 여성들을 모조리 가족에서 축출하고자 한다. 캐서린이 거의 죽어갈 무렵 넬리는 "[기절하거나 죽는] 편이 낫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자 불행을 안겨주는 이로 맴돌 바에야 죽는 게 훨씬 낫다"(so much the better. Far better that she should be dead, than lingering a burden and a misery-maker to all about her; 2.1.141)고 생각하며, "죽은 이의 유물은 소중하죠. 그들이 살았을 적 소중한 존재였다면요."(Any relic of the dead is precious, if they were valued living; 1.13.117)라고 이자벨라의 편지 읽기에 앞서 덧붙이는 말은 이자벨라에 대한 심적 거리를 나타내거나 아무리 사준다 치더라도 상투적인 멘트에 그친다.

하인의 지위 변동을 몸소 겪은 넬리는 가족의 의미 또한 더 경직된 것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캐서린과 이자벨라를 십분 활용하여 히스클리프를 축출하는 데 성공하는 듯 한 부분까지만 보면 넬리가 원하는 가정의 "평화"(peace; 1.5.34) 란 곧 질서와 동의어인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어지는 히스클리프의 복수 플롯 중 린턴 히스클리프와 3세대 캐서린의 결혼을 전혀 탐탁지 않아 하는 넬리를 보면 그것 역시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복수 플롯을 가동하는 히스클리프가 궁극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다름 아닌 질서이며, 복수의 "파괴적 목적이 역설적으로 질서의 원천을 제공한다"(Its destructive aims paradoxically provide a source of order; Vargish 14)고 할 때 넬리가 원하는 것이 질서 그 자체라면 히스클리프가 만든 구도에 만족해야 하지만 그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전략의 귀재인 히스클리프는 질서정연하게 복수를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그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워더링 하이츠로 모으는

3세대도 가지런히 정렬된다. 우선 히스클리프는 도박욕으로 응집되는 힌들리의 약점을 활용하여 워더링 하이츠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 헤어턴을 자신의 유년시절의 복사판으로 만든다. 다음으로 히스클리프는 질서를 장악한 자다운 여유를 부리면서 이자벨라가 런던 근방으로 도망간 이후 굳이 그녀를 찾아 나서지 않고 아들이 자신의 수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워더링 하이츠에 그를 결박한다.

본디 에드거가 이자벨라의 거처로 찾아가 이자벨라의 바람대로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데리고 가는 린턴 히스클리프를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되찾는지 보면 그가 장악한 질서의 힘은 가공할 만하다. 어렸을 적 히스클리프를 집 주인보다 더 업신여기던 하인 조셉은 그 때가 언제였냐는 듯이 히스클리프의 충복이 되어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방문한다. 린턴 히스클리프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넬리의] 중개를 거부하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bent on refusing my mediation; 2.5.176) 장면은 현 주인인 히스클리프에 대한 조셉의 충성심이 도드라지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히스클리프는 3세대 캐서린이 자기 자신 이외의 누군가를 위하고 영민하다는 특징을 약점으로 활용하여 린턴 히스클리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워더링 하이츠에 감금한다. 히스클리프는 이처럼 세 아이들을 모두 한집에 모아 두고 각각을 조종하고 학대하면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해간다. 유약하고 겁 많으며 여성에 편승하는 린턴 히스클리프는 에드거 린턴의 어릴 적 모습을 상기시키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성이 강조되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심히 손상된 상태인 헤어턴은 히스클리프 자신과 연결되며, 3세대 캐서린은 고인이 된 캐서린과 이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히스클리프가 이룩한 구도는 워더링 하이츠의 옛 질서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하다.

넬리는 히스클리프가 이룩한 것과 같은 앞선 세대의 관계 구도를 복제하는 식의 질서가 아닌, 3세대 캐서린이 린턴 히스클리프를 떠나보내고 마침내 헤어턴과 결혼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깊은 만족감을 드러낸다. 넬리는 한때 자신이 몸소 "하인 직분을 내려놓고 시골집을 하나 구한 다음 캐서린더러 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leave my situation, take a cottage, and get Catherine to come and live with me; 2.16.257) 하고 싶었다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비현실적인 꿈에 이어 캐서린의 잠재적 신랑감으로 염두에 두었던 록우드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식 날 나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거"(I shall envy no one on their wedding day)라며, 심지어 "영국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여자는 없을 것"(there won't be a happier woman than myself in England!; 2.18.273)이라고 확신하기까지 한다. 헤어턴과 캐서린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식들"(in a measure, my children; 2.19.279)이라는 넬리의 대사는 헤어턴과 캐서린만이 하인으로서의 지위 변천사를 통과하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히스클리프에 맞서 집주인 및 그 아이들에게 충성을 받쳤던 준 가족 구성원이자 권위 있는 서술자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넬리의 가족 만들기 및 그에 이은 가족사 서술은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의 결합을 종점으로 정돈되는 양상을 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넬리가 축출하고자 했던 히스클리프는 끝까지 넬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히스클리프는 어릴 적 힌들리 휘하 워더링 하이츠에서 빠져나와 캐서린과 함께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방문한 이야기를 넬리에게 전하면서 넬리의 판단에 어깃장을 놓았었다. 히스클리프가 넬리에게 린턴 가문 아이들도 자기 자신과 캐서린처럼 추운 일요일 저녁 시간을 떨고 벌 받는 데 쓸 것 같은지 묻자 넬리는 "아마도 아니겠지. . . . 그 애들은 보나마나 좋은 애들이고

너와 캐서린이 나쁜 행동을 해서 받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될 테니까."(Probably not. . . . They are good children, no doubt, and don't deserve the treatment you receive, for your bad conduct; 1.4.40)라고 답한다. 히스클리프는 힌들리의 불의를 지적하는데 넬리는 그런 그의 말뜻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린턴 가문 아이들은 히스클리프와 캐서린과 달리 품행이 바르다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히스클리프는 알고 보았더니 그 애들은 "바보들"(The idiots!; 41)처럼 시시콜콜한 다툼이나 하는 모습이었고 자신과 캐서린이 "곧바로 그 오냐오냐 큰 애들에게 대놓고 웃어줬다"(laughed outright at the petted things; 41) 고 말한다. 이처럼 히스클리프는 비 오는 날 밤 자기를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 줄 숨은 권위자인 넬리의 의견을 빙자한 훈계에 정면으로 반박하여 넬리의 견해를 흔든 바 있다.

넬리가 히스클리프가 영영 편입되지 못하는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개하는 이 양자 간 대화의 패턴은 『워더링 하이츠』 말미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히스클리프는 전보다 더 사람을 꺼리고 오직 넬리만 상대한다. 이때 넬리는 헤어턴과 캐서린의 결합에 흡족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히스클리프는 다시 한 번 넬리를 미세하게 흔든다. 그는 헤어턴과 캐서린의 "뚜렷한 물질적 외형"(a distinct material appearance; 2.19.279)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전까지 독자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던 헤어턴을 자기 자신과 분리해서 바라보고, 캐서린에 대한 적개심이 무슨 소용이냐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히스클리프는 끊임없이 헤어턴과 캐서린이 2세대 캐서린을 연상시킨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앞선 세대를 떠올리긴 해도 "여전히 그녀를 닮지는 않았다"(still she did not resemble her; 2.4.164)는 점을 강조해온 넬리의 서사에 결정적인 균열을 낸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최종적으로

히스클리프는 “너는 나를 악마라고 생각하지!. . . . 점잖은 집 지붕 아래 살기엔 너무 끔찍한 그 무언가라고 말이야!”(I believe you think me a fiend!. . . . something too horrible to live under a decent roof!; 2.20.289)라며 넬리의 의중을 날카롭게 간파한다.

넬리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변화하는 가족 구조에 밀착하여 변화하는 하인의 지위를 몸소 겪는다. 넬리는 가정에서 하인이 점하는 자리가 협소해지는 와중에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을 오가면서 끝까지 자신의 입지를 지키며 그로부터 가족사를 서술하는 일종의 역사가-서술자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넬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녀가 써내려가면서 들려주는 린턴 가문과 언쇼 가문의 가족사가 중립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히스클리프의 귀환을 무질서 혹은 혼란으로 바라보고 2세대 캐서린과 이자벨라를 축출한다는 해결책을 내놓는 넬리의 노력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넬리가 그리는 이상적 가족 그리고 가정은 질서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히스클리프가 3세대 아이들을 워더링 하이츠에 질서정연하게 다시 모으는 대목에서 넬리는 오히려 가장 불안해하며, 린턴 히스클리프가 죽고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이 결혼하게 되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더 흡족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넬리가 바라는 평화의 기반이 되는 질서가 특정한 종류의 질서임을 반증한다. 초반에는 경직되어가는 가족의 의미에 저항하던 넬리는 소설 말미에서 전보다 훨씬 더 협소해진 가족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로 변모한다. 바로 이때 히스클리프는 다시금 넬리의 이야기가 정리하고 잠재우려는 유령의 존재를 거론하고 3세대에게 결부시킴으로써 넬리가 개인화된 3세대의 혼인 관계로 구성되는 가족 범주를 정립하는 작업을 교란한다.

결론

『워더링 하이츠』의 3세대가 2세대에 비해 큰 이목을 끌지 못한 까닭은 그들의 결합이 지니는 배타적 속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헤어턴과 3세대 캐서린은 친족 관계이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서로 낯선 사이로 만나며, 상대방이 이미 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정작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개인화되는 과정을 통해 재차 가족이 된다. 에밀리 브론테가 그리는 3세대의 결합은 가족적인 존재가 개인적 존재가 되고 개인으로 맺은 관계가 다시금 가족적인 성격을 띠는 결혼이다.

3세대의 이야기는 급기야 배타적 가족주의를 연상시킨다. 바렛(Michèle Barrett)과 맥킨토시(Mary McIntosh)는 "사적인 성격을 띠게 된 가족주의는 더 넓은 차원의 사회적 연대의 저력을 약화"(Privatized family collectivism tends to sap the strength of wider social collectivism)하며 이러한 가족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개개인을] 지탱하는 최상의 가치들을 체현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행운을 타고나지 않은 모든 이는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빈곤해지기 쉽다"(Everyone who des not have the good fortune to be in a family that embodies the best of these supportive values is liable to find themselves isolated and socially impoverished; 171)고 설명한다. 실제로 3세대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개개인을 지탱해주는 가족을 일구는 희귀한 행운의 주인공이다. 고 언쇼 씨의 죽음 이후 가족의 형태가 점점 더 협소하고 경직될 때 그 울타리에서 배제되어 고통 받는 이들이 『워더링 하이츠』에는 훨씬 더 많다.

그러나 3세대를 젠더화된 개인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혼과 가족이라는 형태로만 보는 것은 절반의 이해에 그친다. 오히려 3세대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량을 할애하여 에밀리 브론테는 그들이

개인화되기 이전 상태에 천착한다. 그리고 개인화되기 이전 상태의 3세대는 2세대 유령들과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산다. 여기에 3세대가 이루는 관계가 2세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이루지 못한 관계이기도 하다는 점은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단순한 구도를 넘어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의 영향력을 벗어나면서도 그들의 바람을 계승하고 대리 실현한다고까지 할 수 있는 여지를 연다. 그러므로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독립적으로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에밀리 브론테는 이렇게 2세대와 3세대가 서로 얽힌 가족사를 유령성을 통해 형상화한다. 소설의 구조는 2세대 유령과 3세대의 관계를 단순화하지 않는다. 『워더링 하이츠』의 두 세대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 두 세대에 걸친 가족사는 우리를 "자신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다른 누군가가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인물들"(characters who do not know what they have seen, or if what they have heard of what someone else has seen is true)과 함께 유령이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라는 "분열된 공간"(that ruptured space; Freedgood 123)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전해지는 가족사는 록우드가 워더링 하이츠에서 나와 교회 묘지에서 목도하는 "비석 세 개"(the three head-stones; 292)가 뜻하는 죽음이라는 공공연한 사실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워더링 하이츠』는 결국 워더링 하이츠가 폐쇄되는 이야기이다. 워더링 하이츠가 폐쇄되는 과정은 그곳에 머물던 이들이 삶의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된다. 록우드는 도시로 떠나고, 약혼한 3세대 캐서린과 헤어턴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이사할 날을 기다리며, 히스클리프는 캐서린 유령의 곁으로 옮겨간다. 이들을 제외하고 여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선택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워더링

하이츠의 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할 뿐더러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는 이들 역시 손쉬운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니라서 워더링 하이츠가 돌연 대안적 삶의 산실로 변모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워더링 하이츠』의 특이점은 록우드의 방문과 넬리의 가족사 서술 그리고 집의 폐쇄가 맞물려 진행된다는 데 있다. 에밀리 브론테는 외지인 록우드 그리고 워더링 하이츠와 여타 인물들과 조금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넬리의 대화 구조를 통한 가족사 서술이라는 틀 안에서 워더링 하이츠의 폐쇄를 그린다. 워더링 하이츠는 폐쇄되지만 『워더링 하이츠』는 록우드의 일기나 넬리의 이야기보다 더 큰 공간으로서 유령과 개인이 서로 얽힌 가족사를 담고 있다.

인 용 문 헌

Armstrong, Nancy. *Desire and Domestic Fiction: A Political History of the Novel*. Oxford UP, 1987.

_____. "Emily's Ghost: The Cultural Politics of Victorian Fiction, Folklore, and Photography," *Novel: A Forum on Fiction*, vol. 25, no. 3, 1992, pp. 245-67.

_____. *How Novels Think: The Limits of British Individualism from 1719-1900*. Columbia UP, 2005.

_____. "Gender Must be Defended."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vol. 111, no. 3, summer 2012, pp. 529-47.

Barrett, Michèle and Mary McIntosh. *The Anti-Social Family*. Verso, 1991.

Briggs, Julia. *Night Visitors: The Rise and Fall of the English Ghost Story*. Faber, 1977.

Brontë, Emily. *Wuthering Heights*. W. W. Norton, 2018.

_____. *Wuthering Heights*. Oxford UP, 2020.

Bersani, Leo. *A Future for Astyanax: Character and Desire in Literature*. Little, Brown, 1976.

Caldwell, Janis McLarren. "*Wuthering Heights* and Domestic Medicine: The Child's Body and the Book," *Literature and Medicine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From Mary Shelley to George Eliot*. Cambridge UP, 2004, pp. 68-96.

Freedgood, Elaine. *Worlds Enough: The Interpretation of Realism in the Victorian Novel*. Princeton UP, 2019.

Freeman, Nick. "The Victorian Ghost Story," *The Victorian Gothic: an*

Edinburgh Companion. Ed. by Andre Smith and William Hughes, Edinburgh UP, 2012, pp. 93-107.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e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Imagination*. Yale UP, 2000.

Koegler, Caroline. "Follow the Hatred: The Production of Negative Feeling in Emily Brontë's *Wuthering Heights*," *Novel: A Forum on Fiction*, vol. 54, no. 2, 2021, pp. 270-86.

Krebs, Paula M. "Folklore, Fear, and the Feminine: Ghosts and Old Wives' Tales in *Wuthering Heights*,"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vol. 26, no. 1, 1998, pp. 41-52.

Levy, Anita. "Domestic Fictions in the Household: *Wuthering Heights*," *Other Women: The Writing of Class, Race, and Gender, 1832-1898*. Princeton UP, 1991, pp. 75-97.

Lewis, Alexandra. ed. *The Brontës and the Idea of the Human: Science, Ethics, and the Victorian Imagination*. Cambridge UP, 2019.

Lutz, Deborah. *The Brontë Cabinet: Three Lives in Nine Objects*. W. W. Norton, 2015.

Marsden, Simon. "Ghost Writing: Emily Brontë and Spectrality," *Brontë Studies*, vol. 45, no. 2, 2020, pp. 144-55.

_____. "A Strange Change Approaching: Ontology, Reconciliation, and Eschatology in *Wuthering Heights*," *The Brontës and the Idea of the Human: Science, Ethics, and the Victorian Imagination*, pp. 189-206.

Mendelson, Edward. "Childhood: *Wuthering Heights*," *The Things That Matter: What Seven Classic Novels Have to Say About the Stages of Life*. Pantheon Books, 2006, pp. 47-78.

Moser, Thomas. "What is the Matter with Emily Jane?: Conflicting Impulses in *Wuthering Heights*," *Nineteenth-Century Fiction*, vol. 17, no. 1, 1962, pp. 1-19.

Myburgh, J. A. "Cathy's Mourning in Emily Brontë's *Wuthering Heights*." *Literator*, vol. 38, no. 1, 2017, pp. 1-9.

Nord, Deborah Epstein. *Gypsies and the British Imagination, 1807-1930*. Columbia UP, 2006.

Ohmann, Carol. "Emily Brontë in the Hands of Male Critics," *College English*, vol. 32, no. 8, 1971, pp. 906-13.

Paris, Bernard J. " 'Hush, hush! He's a human being': A Psychological Approach to Heathcliff," *Men by Women*. Ed. by Janet M. Todd. Holmes & Meier, 1981, pp. 101-17.

Possidente, Amy R. "Women and Landscape in *Wuthering Heights*." *Victorians: A Journal of Culture and Literature*, no. 134, 2018, pp. 266-73.

Rylance, Rick. " 'Getting on': Ideology, Personality, and the Brontë Characters,"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Brontës*. Ed. by Heather Glen. Cambridge UP, 2002, pp. 148-69.

Schaffer, Talia. *Romance's Rival: Familiar Marriage in Victorian Fiction*. Oxford UP, 2016.

Seheltens, Maartie. "Hareton Earnshaw; Parentage in *Wuthering Heights*." *Bronte Society Transactions*, vol. 23 no.2, 1998, 136-41.

Steedman, Carolyn. *Master and Servant: Love and Labour in the English Industrial Age*. Cambridge UP, 2007.

Taylor, Charles.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Harvard UP, 1989.

Tytler, Graeme. "The Presentation of Hareton Earnshaw in *Wuthering Heights*." *Bronte Studies,* vol. 39, no.2, 2014, pp. 118-29.

_____. "The Presentation of the Second Catherine in *Wuthering Heights*." *Bronte Studies,* vol. 42, no.1, 2017, pp. 26-36.

Vargish, Thomas. "Revenge and "Wuthering Heights", " *Studies in the Novel*, vol. 3, no. 1, 1971, pp. 7-17.

Vine, Steve. "Crypts of Identity: the Refusal of Mourning in *Wuthering Heights*," *English*, vol. 48, pp. 169-86.

Williams, Anne. "Natural Supernaturalism in 'Wuthering Heights'," *Studies in Philology*, vol. 82, no. 1, 1985, pp. 104-27.

Winnifrith, Tom. "Brontë biography: a survey of a genre," *The Brontës in Context*. Ed. by Marianne Thormählen. Cambridge UP, 2012, pp. 169-74.

Abstract

Spectrality and Individuation in *Wuthering Heights*

Yubin Cho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Emily Brontë's *Wuthering Heights* by focusing on dissonances between disseminated 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the monolithic family history narrated by Nelly. Nelly separates the third generation from the ghosts of Catherine Earnshaw and Heathcliff to write her own version of the family history, which culminates in the union of Catherine Linton and Hareton. The third generation, however, cannot be immune to the spectrality of their parents' generation, and their individuation is also related to first Catherine and Heathcliff's unfulfilled desire. Such embodiment of spectrality and individuation epitomize Emily Brontë's vision which does not completely separate the two generations and fails Nelly's attempt to write a family history that normalizes the family formed by marriage between gendered individuals.

The first chapter finds a clue to spectrality from Catherine Linton's ghost. This figure is homeless, obscurely described, keeps silent regarding pains inflicted on her, and is perceived as a ghost. These characteristics foreshadow the lives of the second generation prior to their characterization. As the real-life stories of ill-treated/neglected second generation repeatedly represent the trades of the ghost girl, Wuthering Heights gains its significance as the ghost house that keeps reproducing spectrality. The tourist-narrator Lockwood bears witness to its power by experiencing a pseudo-ghost himself.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how Heathcliff's revenge shackles the third generation. Spectrality established by the four variations analyzed in the first chapter formulates spectral life pattern which centers on Wuthering Heights. As the third generation follows this pattern, spectrality denotes regression and restraint. For the third generation to escape from spectrality, courtship mediated by books is instrumental to their romance.

The third chapter concentrates on the narrator Nelly. Although spectrality and individuation depicted in *Wuthering Heights* clarify the interloc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enerations, Nelly describes the second generation as ghosts and the third as individuals to support and celebrate the formation of the modern nuclear family. Despite Nelly's intervention in the family making, remaining spectrality and Heathcliff's uncontained presence weaken Nelly's authority.

keywords : Emily Brontë, *Wuthering Heights*, spectrality, individuation, history of family,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Student Number* : 2018-27131**